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NEC 명예박사학위 받는다

연주자로서의 삶에만 전념
명예박사학위 "큰 영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현의 마녀', '암호랑이' 라고도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67)가 오는 17일 일요일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NEC)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는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에서 4년 전에 편지가 왔다" 는 정경화 씨는 본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오직 바이올린 연주자로서의 삶에만 전념해온 것에 대한 인정이 아닐까 싶다" 며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는 소감을 전했다.

보스톤을 '꿈의 장소' 로 기억하는 정경화 씨는 "오빠(정명근)가 보스톤에서 유학을 했었고 미국에 오기 전부터 보스톤은 꿈의 장소였다" 고 말했다. "차침내 보

스톤 심포니와의 협연을 가졌고 그 때 보스톤 심포니홀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기억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고

정경화 씨는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의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계기로 보스톤 한인사회와 더욱 친밀해지기 원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그녀는 "계속해서 보스톤에 연주여행을 올 수 있기를 원하며 이 지역의 한인들과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얘기하고 싶다.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보낸다" 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5살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정경화 씨는 13세가 되던 해 줄리어드 음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며 본격적인 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정 씨는 1967년 레번트트 국제 콩쿠르에서 동문인 판커스 주커만과 공동 우승을 하며 세계무대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면으로 계속



오는 17일 NEC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의외의 중징계 받은 탐 브래디

디플릿게이트 위기관리 능력 부재 드러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탐 브래디의 디플릿게이트 방어팀은 NFL 조사팀에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하며 최고의 브랜드의 명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등 위기 관리 능력의 부재를 드러냈다.

페스키 베어레인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조 베어레인 회장은 13일 보스톤글로브의 오피니언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디플릿 게이트는 당초 속도위반 정도에 가까운 사건이었지만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브래디를 타깃으로 하는 고속 폭주차 추격전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9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할인항공권전문

From **\$1198**

보스톤-인천(왕복!) ONLY 1 Stop

6월 출발!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항공권 금액은 실시간으로 변동됩니다. 항공사, 여행일정, 예약상황 등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ACE TRAVEL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한국어 상담 월~금 11am~9pm
예약센터 영어, 일어 only 1-877-489-4223 (24/7)
이메일 info@iace-korea.com 온라인 예약 www.iace-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iacetrvlkr
카톡상담아이디: IACEKOREA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une N.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Dir: 508.665.1544
Fax: 508.665.1537
june@selamilaw.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한인 어학연수생 보스턴 커먼서 집단폭행 당해

(보스턴=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언어를 배우기 위해 미국인 여성과 만남을 가졌던 한인 어학연수생 K씨(23)가 8일 오후 9시 30분께 보스턴 커먼(Boston Common)에서 2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불운을 당했다.

K씨에 따르면 보스턴 커먼을 백인 여성과 함께 커먼의 프로그 폰드 주변을 걷고 있었으며 청소년 집단을 쳐다보지도 않았음에도 이 청년들은 갑자기 K씨의 머리에 주먹을 날려 쓰러뜨렸다.

K씨는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얼굴에 여러군데 멍이 드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최초 폭행 후 동행하던 백인 여성이 카메라로 가해자들을 사진촬영하자 카메라를 강탈하려는 청소년들에게 추가 폭행을 당했다고 K씨는 밝혔다.

K씨와 동행했던 케임브리지 거주 백인 여성(27)은 모계가 일본인 계로 한국말을 배우고 대신 영어를 K씨에게 가르쳐주는 만남을 갖고 있었다. 남편로 혼성된 20여명의 청소년들이 느닷없는 폭행을 가하자 K씨는 이를 촬영했고 다른 청소년들이 이 여성의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며 이 여성에게까지 폭력을 가했다.

보스턴 글로브에 따르면 이 청소년 일행 중의 한 명이 폭행을 중단할 것



한인 어학연수생이 지난 8일 보스턴 커먼에서 10대 청소년들 20여명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을 요구하면서 K씨와 이 백인 여성은 이들에게서 도피할 수 있었고 91에 신고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 여성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 도체스터 거주 16세의 소년과 15세의 소녀를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 두 청소년은 폭

행혐의로 기소됐으며 15세 청소년은 강도협의로도 기소됐다.

체스터 힐에 거주하는 K씨는 어학 연수를 위해 미국을 찾은 지 4개월째이며 향후 대학진학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유학오기 전부터 보스턴은 내게 꿈의 도시"

▶▶1면에 이어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협연을 펼치며 화려한 경력을 이어오던 그녀는 2007년부터 줄리어드 음대 교수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2012년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임용됐다.

누구보다 성공적인 탄탄대로를 달려온 듯한 그녀의 삶에도 위기는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찾아온 가족의 죽음과 손가락 부상은 음악인으로서 치명적인 상처가 됐던 것이다.

“화가 복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냐”는 정 씨는 “바이올린을 켤 수 없었을 때에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무엇인지를 떠올리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회상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바이올린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사랑이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정 씨는 “(내가) 음악을 통해 추구한 것은 오직 그 음악의 깊이와 아름다움이었다”며 “거기에 따라오는 성공과 영광... 이런 것들은 모두 그 다음”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너무나 음악을 사랑하고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사랑한다”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의 고백이었다.

인터뷰의 끝으로 음악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정 씨는 “연주자라면 우선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들을 때 잘한 것과 못한 것을 확실히 들을 수 있는 판단력이 중요하다”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경화 씨와 함께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음악인으로는 변화경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교수의 남편이자 거장 피아니스트인 러셀 셔먼과 소프라노 가수 제시 노먼, 재즈 피아니스트 아흐마드 자말이 있다.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은 오는 17일 일요일 오후 3시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조던 홀(Jordan Hall)에서 열릴 예정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m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튼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론 펌 Iron Perm
-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백반증후군 극복, 하버드 조기 입학

내셔널 메리트 장학생 선발
백반증후군 앓아
왼쪽 시력만으로 공부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과 윈드 앙상블 콘서트 마스터를 지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활동을 해왔다.

이재승 군이 바쁜 스케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자기관리였다. 그는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으려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습관을 길렀고 기사나 책에서 읽은 수면과 집중력에 관한 이론을 (내게) 적용해 가장 효율적인 학습 습관을 갖게 되었다” 고 전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뉴튼 사우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재승 군(12학년)이 지난 6일 미 전국 내셔널 메리트 장학생 명단에 올라 \$2,500의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매년 150만명이 지원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재승 군은 하버드 대학에 조기입학 전형으로 합격했으며 경제학을 전공할 예정이다

이재승 군은 본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종 발표까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잊고 있었다” 며 “비싼 대학 등록금의 시작부터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 는 소감을 전했다.

“하루가 늘 분주하고 시간이 모자랐다” 고 회상한 이 군은 고교 4년간 학교 학생회장을 맡아왔다. 아울러 교내 디베이트, 수학, 비즈니스 클럽 등의 캡틴

이 군의 어머니 정기라 씨는 “지금 은 많이 나왔지만 대학 입시와 장학금 원서 제출로 바빴던 지난해 10월이 재승이에게 건강 악화로 가장 힘들었을 시기였다” 며 “시련 속에서 잘 견디며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걸 성취하게 되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고 밝혔다.

이재승 군은 망막에 염증을 유발하는 백반증후군을 앓아 일년 반 전부터 한쪽 시력만으로 생활해왔다. 현재는 많이 호전되어 큰 글씨는 볼 수 있지만 책의 글씨를 잘 알아보기 못하는 상태다.

내셔널 메리트 장학금은 11학년에 실시하는 PSAT 시험에서 240점 만점 중 221점 이상을 받아 전국 상위 0.6%에 포함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며 매년 약 6천명이 장학금 혜택을 누린다.

세미 파이널리스트에 오른 이재승 군은 학교 성적과 다양한 시험 성적, 리더십, 특별 활동, 추천서 등의 까다로운 심



이재승 군(뉴튼 사우스 고등학교, 12학년)이 내셔널 메리트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사를 통과해 12학년 초에 파이널리스트에 올랐다는 소식을 접했으며 이어 지난 6일 전국 단 2,500명의 장학생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뉴튼 사우스 유일한 한인 학생으로 장학금을 수상했다.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이재승 군은 “그동안 책으로만 접하던 맨큐 교수님의 경제학 강의를 들을 생각에 벌써 마음이 설렌다” 며 “좋은 친구들과 비즈니스 클럽을 비롯해 마음에 드는 활동을 같이 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구체화 시켜가려고 한다” 는 포부를 밝혔다.

dyoo9146@bostonkorea.com

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자 명단

상	상이름	수상자	학교
전체 대상	총영사상	이재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Pre-Kinder 대상	시민협회장상	박준영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등	1등	김주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Kinder 대상	서울대 동문회장상	기예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등	1등	권단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등	2등	이지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3등	3등	박예준	밀알 한국학교
1학년 대상	중앙대 동문회장상	이준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등	1등	한예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등	2등	이세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등	2등	이지환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
3등	3등	민복기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
3등	3등	남소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학년 대상	한양대 동문회장상	김진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등	1등	손예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등	2등	최서경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3등	3등	김서연	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3학년 대상	고려대 동문회장상	이혜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등	1등	문소연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
2등	2등	이수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등	2등	이생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3등	3등	엄하영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3등	3등	송호빈	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4학년 대상	과학기술협의회회장상	최가림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
1등	1등	이재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등	2등	한동진	북부보스턴 한국학교
3등	3등	박상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5학년 대상	무역협회장상	문은진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
1등	1등	이유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등	2등	채민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3등	3등	서가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6학년 대상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상	최유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7학년 대상	한미노인회장상	정기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등	1등	채인옥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등	2등	이지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등	2등	김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3등	3등	박형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3등	3등	이인상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8학년 대상	예술인협회장상	김수경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등	1등	최예빈	퀸지 한국학교
2등	2등	박정민	밀알 한국학교
9학년 대상	뉴햄프셔 한인회장상	이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등	1등	김예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0-12학년 대상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회장상	이주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등	1등	최지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등	2등	김선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 수상작품은 38, 40, 42면으로 계속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 AM - 11:00 AM April 4 - May 30
SAT II / AP Chemistry	11:30 AM - 1:30 PM March 21 - May 30
SAT II / AP Biology	2:00 PM - 4:00 PM March 21 - May 30

SAT Plus Summer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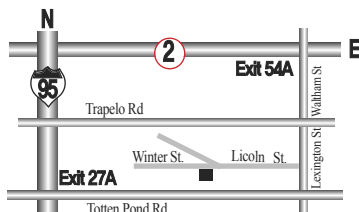
July 6 - July 24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August 3 - August 21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소중하게 걷은 네팔 성금, 전달도 소중하게

성금 모금 시기 행각 기승, 주의해야
행정비 20% 이하 단체, 신뢰도 높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잇따른 지진 피해로 신음하는 네팔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시기 단체도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구호단체들의 실제적인 성금 전달률도 높지 않아 소중한 성금 전달에 있어 더 많은 리서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규모 7.3의 강진이 또 한 번 네팔을 강타해 설상가상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8천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지 17일만에 발생한 것으로 현지 구호 상황 조차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시기 단체들은 웹사이트 주소에 '네팔'이나 '지진', '후원' 등의 단어를 넣은 허위 웹사이트를 개설해 성금을 가로채고 있으며 각종 SNS 매체를 통해 성금 모금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소중한 후원금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이 정식 후원금 수령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설된 구호단체 혹은 후원금의 사용처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단체에는 후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효율적인 구호 활동을 위해 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일부 후원자들은 담요나 의류, 식량 등의 물품을 전달하고 싶어하지만 이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후원 방식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강진에 의해 파괴된 도로와 마비된 교통사정으로 인해 후원된 물품이 필요한 곳에 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네팔 현지 주민은 총영사관 등의 정부기관에 성금을 보내는 것보다 현지에서 활발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NGO(비정부기구)에 직접 보내는 것을 추천기도 했다.

한편, 현지에서 활동하는 구호 단체 중에서도 운영 및 홍보로 들어가는 행정비와 실질적인 성금 전달률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효율적으로 성금을 전달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구호 활동에 따라 행정에 사용되는 비율이 단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후원금의 20% 이하를 행정비로 사용하는 단체가 신뢰도가 높다



타임지가 추천한 '채리티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는 후원자들의 효율적인 성금 활동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로 각 구호단체의 신뢰도와 투명성에 따른 평점, 행정비 비율, 활동 내역, 국제청 인증서 등을 제공한다.

채리티 네비게이터의 자료에 의하면 네팔 지진 피해 구호단체 중 가장 신뢰도 높은 단체로는 MAP International(행정비 0.1%), Direct Relief(0.4%), Brother's Brother Founda-

tion(0.2%), Heart to Heart International(0.5%) 등이 있다.

다소 생소하지만 행정비 뿐 아니라 투명성, 활동 내역 등을 평가해 97점 이상을 받은 검증된 구호단체들이다.

채리티 네비게이터를 통해 다양한 구호단체로 후원금을 보낼 수 있으며 각 구호 단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charitynavigato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김형오 전 의장 "대선 후보, 외교·도덕적 리더십 갖춰야"

스탠포드 대 이어
하버드에서 강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지난 8일 금요일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열린 한국 대선과 차기 대선에 대한 강연을 통해 차기 대선 후보의 외교적, 도덕적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2017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 한국 정치와 차기 대통령 선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는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와 하버드 교수진, 학생 등을 비롯한 보스톤 지역 한인 6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의 사회를 맡은 보스위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김 전 의장의 강연에 앞서 "2017년 대선을 벌써 논하나"며 "하긴 미국도 2016년 대선을 2012년부터 얘기하더라" 라고 전해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 전 의장은 강연을 통해 "대선 후보자들은 통일 한국을 위한 외교 역량 강화와 건강한 시민사회의 성장,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이슈인 고고도 미사일 방

어 체계(THAAD) 도입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강국에 둘러싸인 중강국으로서 갖춰야 할 자립적인 외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 전 의장은 "한국 시민사회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 라며 건강한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해 지도자들은 극단적인 시민 단체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끈질긴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이어 "한 기업인이 자살하면서 남긴 리스트가 재임한지 63일밖에 되지 않은 총리를 사임으로 몰고 가는 파문을 일으켰다"며 "차기 대선 후보는 정치와 경제 사이에 놓인 부패를 끊어야 한다" 고 전했다.

또한 김 전 의장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노태우 정부 당시에 논의됐던 상호 불가침 조약이나 김대중 정부의 휴전 협정의 평화 협정으로의 대체 문제가 재조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진 질의응답은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가 통역을 맡았으며 남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 통일 한국을 위한 외교 방안, 대선을 앞둔



질의응답에서 발언하는 김형오 전 의장(오른쪽)과 통역을 준비하는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

지역감정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송용일 보스톤 대학(BU) 학생은 "이원정부제(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결합된 정부 형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참 많이 고민했던 문제지만 불행하게도 개헌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

고 국회에 책임성을 물을 수 있는 구조의 형성이 중요하다" 고 답변했다.

6일 스탠포드 강연에 이어 열린 이날 하버드 강연은 하버드 코리아 인스티튜트(Korea Institute)와 벨퍼 센터(Belfer Center)가 주관했다.

5선 국회의원(14~18대)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전 의장은 현재 부산대(총장 김기섭) 사회과학연구원 석좌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션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바다 향 가득~ 돌아온 랍스터의 계절



▶로이 무어

39 Bearskin Neck, Rockport, MA 01966

978-546-6696

락포트의 랍스터 맛집으로 로이 무어(Roy Moore)를 빼놓으면 섭섭하다. 딱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아담한 입구에 빨간 랍스터 간판이 인상적이다. 아담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의 로이 무어는 매년 랍스터 매니아들이 다시 찾아오는 락포트의 맛집이다. 통째로 찌낸 랍스터 외에도 스테르프 클램(Stuffed Clam)과 칵테일 슈림프(Cocktail Shrimp) 등이 인기 메뉴다.

시로 바로 올린다는 이곳은 찌낸 랍스터 외에도 스테르프 랍스터(Stuffed Lobster), 랍스터 라비올리 등의 요리가 유명하다. 무엇보다 랍스터 주문 시 식전빵(롤)과 콜슬로, 감자튀김 등의 사이드와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우드먼스

121 Main St, Essex, MA 01929

978-768-6057

woodmans.com



노스 쇼어(North Shore)에 가게 되면 꼭 들러야 할 곳 중 하나가 바로 우드먼스(Woodman's) 레스토랑이다. 가격이 조금 센 편이지만 양도 푸짐하고 맛도 좋아 손님들의 발걸음이 여름 내내 끊이지 않는다. 싱싱한 랍스터도 좋지만 프라이드 클램이 특히 유명하다. 단골 고객들의 말로는 우드먼스는 "뉴잉글랜드 최고의 프라이드 클램"을 제공한다고.

▶랍스터 클로우

42 Cranberry Highway, Orleans, MA 02653

508-255-1800

lobsterclaw.com

케이프 코드에 위치한 랍스터 클로우(Lobster Claw)는 이 지역의 손꼽히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싱싱한 해산물 요리가 일품이다. 30피트 길이의 배가 바(Bar)로 사용되어 굉장히 이색적인 분위기를 낸다. 테이블을 기다리면서 레스토랑 한켠에 마련된 기념품 가게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매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얼리 버드 디너(Early Bird Dinner)에는 디너 메뉴 주문 시 차우더와 음료, 디저트가 무료로 제공된다.

▶아놀드 랍스터 앤 클램 바

3580 Route 6, Eastham, MA 02642

508-255-2575

arnoldsrestaurant.com

아놀드 랍스터 앤 클램 바(Arnold's Lobster and Clam Bar)는 케이프 코드의 빼놓을 수 없는 해산물 맛집이다. 보물섬 테마의 미니골프장(1인에 \$7.50)도 구비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 놀러가기에 안성맞춤이다.

▶맥스 쉼

91 Commercial St, Wellfleet, MA 02667

508-349-6333

macsseafood.com

분위기 있는 랍스터 음식점을 찾는다면 웰플릿에 위치한 맥스 쉼(Mac's Shack)을 추천한다. 랍스터 외에도 굴 등의 해산물이 일품이며 스시도 판매한다. 월요일은 휴무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기다리고 기다리던 랍스터의 계절이 돌아왔다. 통통하게 오른 살로 풍부한 식감을 자랑하는 랍스터는 반드시 맛봐야 할 뉴잉글랜드 지역의 대표 음식이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랍스터의 철을 맞아 지면을 통해 매사추세츠 주의 유명한 랍스터 맛집을 소개한다. 바다 향을 가득 품은 랍스터로 올 여름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랍스터 풀

329 Granite St, Rockport, MA 01966

978-546-7808

락포트(Rockport) 바다를 바라보는 랍스터 풀(Lobster Pool)은 해질 무렵에 손님으로 가장 붐빈다. 랍스터의 풍미에 반하고 바다 위로 지는 석양에 한 번 더 반하는 곳이기 때문. 통째로 찌낸 랍스터 외에도 랍스터 롤, 클램 차우더, 프라이드 클램(Fried Clam) 등의 메뉴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 꼭 맛 볼 것을 추천한다.

▶더 글러스터 하우스

63 Rogers St, Gloucester, MA 01930

978-283-1812

thegloucesterhouse.com



글러스터 소재 더 글러스터 하우스(The Gloucester House)는 선착장에 위치한 분위기 있는 유명 맛집이다. 갓 잡은 랍스터를 배에서 접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ni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보스톤 총영사컵 태권도 대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 보스톤 총영사관(총영사 엄성준)과 로드아일랜드 주 태권도협회(회장 홍진섭)가 주관하는 보스톤 총영사컵 태권도 대회가 오는 30일 토요일 로드아일랜드 주 이스트 그린위치 고등학교에서 개최된다.

뉴잉글랜드 지역과 뉴욕, 뉴저지에서 3살부터 80세에 이르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날 대회는 나이와 체급, 띠별로 나누어 품세, 겨루기, 격파 등의 경기가 진행된다.

시범단 경연대회는 오전 9시에 시작하며 이어지는 오프닝 개회식은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홍진섭 관장은 “지난 30년간 태권도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특별히 이번 총영사컵 태권도 대회를 통해 태권도 대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격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보스톤 총영사관 측은 태권도 대회에 앞서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의 문화와 태권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한편, 개최 측은 대회 수익금의 일부를 학교폭력 방지 기금으로 지역 교육청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날 대회는 미국 태권도 연맹, 민주평통 보스톤 협의회, 보스톤 한인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보스톤코리아, 뉴잉



글랜드 한국학교에서 후원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한인회 "뉴욕 태권도 축제 함께 갑시다"

선착순 40여명 교통편 및 식사 무료제공

이다. 버스는 당일 오전 8시 렉싱턴 소재 성요한교회에서 출발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 한인회(회장 김경원)가 오는 6월 5일 금요일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제 7회 태권도 페스티벌 행사에 보스톤 한인들을 초대한다.

김경원 39대 한인회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권도 축제와 뉴욕 나들이를 겸해 즐길 수 있는 기회에 한인들을 초대한다”며 “보스톤 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스톤 한인회는 선착순 신청자 40여명에 한해 버스 교통편과 식사, 음료 등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

뉴욕 태권도 페스티벌 행사에 관심있는 한인은 유영심 한미노인회 회장(978-994-5490)에게 참석 여부를 밝히면 된다.

이날 행사는 전미태권도교육재단(회장 김경원)이 주최하는 7번째 연례행사로 매년 1만 2천여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가해 뉴욕의 심장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인다.

특히 학교 폭력 방지 캠페인과 함께 진행되는 올해 태권도 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으로 열린다.

dyoo9146@bostonkorea.com

한미노인회 효도잔치, 카네이션 달고 '활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보스톤 한미노인회(회장 유영심) 효도잔치 행사가 지난 6일 수요일 노스 앤도버 소재 국제선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참석한 30여명의 회원들이 가슴이 카네이션 한 송이씩 꽃은 채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유영심 회장은 “특별히 35,36대 보스톤 한인회장(35,36대)을 역임한 유한선 전 한인회장 내외가 회원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웃음 10개 명과 ‘내 나이가 어때서’ 건강체조



지난 6일 열린 한미노인회 효도잔치에서 참석한 회원들이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에 맞춰 건강체조를 하고 있다

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인 이금자 씨와 이정순 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움의 장으로 프로그램이 연결되었으면 한다”며 감사와 만족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보스톤 한미노인회 행사에 관한 문의는 유영심 회장(978-994-5490) 또는 윤철호 부회장(978-902-8305)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티비패드 저작권 침해 소송, 사용자 '난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티비패드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가운데 판매업체가 폐업하며 신규 판매가 중단되었다. 미국 내 서비스가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티비패드 사용자들만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티비패드가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한국 콘텐츠 뿐만 아니라 미국 콘텐츠 또한 계약 없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티비패드의 승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티비패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결은 5~6월 사이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3월 18일 한국 법원은 티비패드가 방송 3사의 콘텐츠를 복제

혹은 동시 중계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고 판매를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티비패드를 판매하던 유통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판매 금지 및 가압류가 시작됐다.

판매자들은 서버가 중국에 있고, 자신이 관리하지 않으며 세타만 판매할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한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조력하고 방조한 책임이 크다고 판결했다.

'한 번 사면 평생 무료로 볼 수 있다' 는 컨셉으로 판매를 시작한 티비패드는 사실상 콘텐츠 권리권자와 계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 끊길지 모르는



서비스이다.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법적 판단 여부를 떠나서, 운영하는 업체는 네트워크 비용을 매월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돈으로 영원히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청소년 한국문화 알리미 '아띠' 발표회 개최

30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서 발표회 가져
한국 역사, 과학 파헤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문화 청소년 홍보대사인 아띠(단장 장동근, 이사장 이강원)의 연례 발표회가 오는 30일 토요일 뉴튼 소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역사와 과학 분야 주제로 지난 일 년간 연구를 진행한 세 명의 고등학생들의 개별 연구에 대한 발표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뉴튼 노스 고등학교의 오유진(11학년)과 나슈아 노스 고등학교의 김진(10학년), 렉싱턴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장주은(10학년) 학생이 각각 한국 전쟁, 재래의학, 유네스코 등록 고대 마을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이날 발표회에는 수목화를 그리는 미국인 간호사, 닐 렌드레빌(한국명 나노열)이 특별 강연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한다.

렌드레빌은 1970년대 한국에서 평화봉사단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의료 봉사자로 활동해 왔다. 한국 학교 학생들에게 세계를 향해 가슴을 열라는 취지의 강연을 전달한다. 렌드레빌의 수목화 작품은 5월 한 달간 콩코드 도서관에서 열리는 한

국문화 전시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발표회 후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며 이날 행사에는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서 봉사했던 봉사자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순우리말로 '친한 친구' 라는 뜻을 가진 '아띠' 는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문화 알리미 청소년 홍보대사로 지난 2011년부터 한국 동요 녹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주사회에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bostonkorean@hotmail.com

무료라서 더욱 신나는 금요일 프리 펀 프라이데이 이용하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문화시설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프리 펀 프라이데이(Free Fun Friday)가 오는 6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10주간 진행된다.

프랭클린 파크 동물원, 보스톤 미술관 등의 보스톤 대표적인 명소부터 자동차, 텍스타일, 사진 이색적인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박물관까지 뉴잉글랜드 지역 총 70개 문화시설이 한 주에 7곳씩 돌아가며 무료 입장을 제공한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장소로는 최근 리노베이션을 마친 글러스터 소재 케이프 앤 박물관(Cape Ann Museum)과 세일럼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하우스 오브 세븐 게 이블스 (House of Seven

Gables) 등이 있다. 또한, 늘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지만 막상 돈 주고 타기에는 가까운 보스톤 항구 근처의 회전목마 (Greenway Carousel)도 8월 7일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10주간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프리 펀 프라이데이의 일정은 하이랜드 스트리트 웹사이트(www.highlandstreet.org/freefunfriday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올해로 7번째 프리 펀 프라이데이를 주관하는 하이랜드 스트리트 재단(Highland Street Foundation)은 1989년 설립된 비영리 자선단체로 매사추세츠와 캘리포니아 주 아동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 한인회 슬로건 공모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 한인회(회장 김경원)가 한인회 통합과 활성화를 위한 슬로건 공모전을 기획해 한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모집에 나섰다.

김경원 39대 한인회장은 "보스톤 한인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한인회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며 "한인회 행사 때 한인들이 함께 선창, 후창할 수 있는 좋은 슬로건을 모집한다" 고 밝혔다.

한인회 슬로건 응모 기간은 5월

31일 일요일까지며 매사추세츠 주 한인 전체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참가자(1명)에게는 최신형 갤럭시 노트가 상품으로 주어지며 이외에도 2등(3명)과 3등(10명)에게도 푸짐한 상품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응모는 우편(13 Campbell St, Woburn, MA 01801) 또는 이메일(haninhoebo@gmail.com)로 하면 되며 응모 시 공모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령층, 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기입한 후 슬로건을 함께 적어 보내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오빠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사소한 위반이 중 범죄로 둔갑한 디플릿게이트

▶▶1면에 이어서

고 지적했다. 25년 위기 관리 해결사로의 경험으로 브래디 위기 관리팀의 전략 부재를 목격했다는 것이다.

첫째 실수는 브래디의 지난 1월 22일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된다. 경기에 사용된 풋볼의 바람빠기에 관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브래디는 평소 운동장에서 보여주던 침착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풋볼 규칙을 어기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풋볼 리그를 존중한다"며 명확하고 경직된 발언을 함으로써 현재의 곤란한 상황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분명히 풋볼 사무국에서 패트리어츠와 브래디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알고도 되돌릴 수 없는 분명한 발언을 한 것은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는 것이 조 베어라인의 지적이다.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것은 로버트 크래프트 구단주의 조롱이 담긴 성명이었다. 그는 슈퍼볼 경기에서 NFL에게 자신과 구단 그리고 브래디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조사관들의 분노를 사게 했다.

지난 6일 웰스 리포트가 발표됐을 때 브래디의 에이전트 돈 이는 조사관이었던 테드 웰스 변호사와 NFL의 밀접한 관계와 전체 보고서의 신빙성을 두고 공격을 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반격은 브래디와 패트리어츠가 탐 브래디의 브랜드 가치와 명성을 보호하려는 정확한 게임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나쁜 반응 중의 하나이다.

첫번째 법칙: 언론 등 여론을 통제하고 정확한 대응만 한다.

1월 브래디의 보좌진들은 미리 대화를 나누지 않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들 나름대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 슈

퍼블 전까지 몇 차례의 기자회견에서 브래디와 벨러치 감독을 계속 언론 앞에 노출시켰다.

그러나 여론을 조정을 위한 대응은 결코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추후 대가를 치르게 했다. 기자회견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잘못 선택한 행위였다. 대신 패트리어츠는 아주 신중하게 조율된 성명서를 발표했어야 한다. 이 성명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었어야 했다. "나는 수년간 특정 방식으로 경기용 풋볼을 준비해 왔다. 만약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유감이며 NFL이 제시하는 지침을 구할 것이다" 라고 했어야 한다. 이 같은 작은 노력이 차후 브래디 이미지 방어에 대한 프레임의 짜는데 많은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두번째 법칙: 이미지 손상 관리.
브래디 팀은 지난 1월 22일 직후에 향후 대화나 협조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브래디와 패트리어츠는 지난 5월 6일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야 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여론을 형성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또한 브래디의 에이전트가 이에 대해 공식 반응하기까지 하루씩이나 걸린 것도 사태를 나쁘게 만든 것이다. 결국 언론과 블로거들인 웰스 리포트를 보도해 대중에게 일정한 프레임을 갖도록 해버린 것이다. 더구나 에이전트 돈 이는 테드 웰스가 NFL과 사업적 관련이 있으며 동기가 방법론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로저 거텔 사무총장이 심판관이자, 배심원 에다 집행원임을 완전히 잊은 대응이었다.

브래디와 패트리어츠는 시간만 가라는 식의 대응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브래디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NFL은 그동안 레이 라이스와 에이드리언 피터슨의 잘못된 징계로 인해 입은 신뢰의 손상을 브래디를 희생양으로 삼아 회복해야 했다. 브래디의 최고 쿼터백이란 위상으로 볼 때 NFL에게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브래디 팀은 이를 오판해 브래디이니까 어떻게든 대중 징계하고 넘어가겠지라는 착각을 했다는 것이다.

비록 뉴잉글랜드 내에서 브래디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가 있기는 하지만 브래디를 결코 뉴잉글랜드의 쿼터백으로서 그를 방어해서는 안됐다. 이는 내년에 한두 게임 정지란 벌칙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브래디라는 최고 쿼터백의 업적 측면에서 다뤄야 했다. 웰스 보고서와 언론의 반응은 현재의 브래디에게도 그리고 미래의 브래디에게도 결코 후회적이지 않다.

세번째 법칙: 모두가 함께 논의해 역할을 분담했어야 한다.

브래디는 패트리어츠의 얼굴임에도 그에 대한 방어는 전혀 잘 조직화되지 못했다. 특히 패트리어츠의 제 1의 스타를 방어하는데 있어 패트리어츠는 자체의 브랜드 파워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다. 크레프트의 성명은 따로, 벨러치는 한 번 얼굴을 내민 후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팀 동료 그론코우스키는 말도 안되는 성명서를 내었던 것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다.

왜 패트리어츠는 다른 회사들이 채택하는 위기 대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 여론을 조정하라는 첫번째 법칙에 따라 그들은 미니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질의 응답식으로 디플릿게이트의 의문점을 풀어주고 크레프트, 벨러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탐 브래디가 11일 2015-16시즌 4게임 출장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칙, 그리고 팀 동료들의 브래디의 캐리커에 대한 논평을 담아 그의 인격적인 면을 강조하고 그의 행동이 결코 의도적이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어야 한다. 이것이 메시지를 조율하고 여론을 조정할 수 있는 좋은 조직화된 방법의 하나다. 또한 스포츠 블로그와 기사들 중 진실이 아닌 것은 디펜스 팀이 적극적으로 기록 정정을 요구했어야 한다. 패트리어츠는 전 쿼터백 스타 즐락이 재키 맥멀런의 최근 ESPN 칼럼에서 말했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네번째 법칙: 현명하게 대처하기.
브래디의 에이전트가 웰스 보고서를 마치 형사 변호인처럼 공격했다. 이것은 결코 법적 프로세스가 아니며 오히려 브래디가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마치 통제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브래디 팀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일반 대중에게 브래디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화를 시작했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위기가 닥칠 때까지 기다렸다. 브래디의 에이전트는 246 페이지의 보고서를 브래디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돌려놓으려 노력했지만 그것은 지난 1월 달에 취했어야 하는 입장이었다.

다섯번째 법칙: 싸울 상대를 잘 정하라.

웰스 리포트의 핵심적인 증거 중의 하나는 브래디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셀폰을 NFL의 조사관에게 넘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풋볼 관리 직원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 셀폰을 조사관에게 넘겨주었다. 비즈니스 폰을 넘겨주는 것은 결코 프라이버시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기에 합리적이다.

브래디에게 요구한 폰은 자신의 가족과 아이들 그리고 아내와 사용하는 전화였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기 전에 NFL은 브래디의 전화기의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전화기는 최고의 쿼터백과 세계 최고의 모델이었던 그의 아내 사이에 사용되는 셀폰이다.

그럼에도 전화를 넘겨주지 않는 것만 문제가 되고 있다. 웰스는 브래디의 개인적 사생활이 담긴 전화를 넘겨달라고 한 것이다. 이 부분은 아주 공개적으로 싸웠어야 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분야였다.

오히려 브래디 전화를 넘기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에이전트의 모습은 오히려 잘못된 인상을 주고 말았다. 결국 루저의 입장에서 싸움을 하고 만 것이다.

브래디가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실수했었을 수도 있다. 결국 위기관리팀은 이 사소한 잘못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대중들에게 심어진 잘못된 이미지를 정정하기에는 너무 늦어질 때까지 실기했다. 이번 NFL의 패널티는 브래디의 잘못에 비해 과한 것이지만 기사감으로는 결코 과하지 않았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힐리 법무장관, NFL 우선순위 잘못됐다

디플릿게이트 처벌 지나치게 가혹해

성범죄, 가정 폭력에 대해서 단호해야



힐리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은 NFL 사무국이 가정 폭력과 성범죄에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법조계 최고직 공무원인 모라 힐리 법무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플릿게이트 처벌과 관련하여 강한 어조로 NFL 사무국을 비판했다. NFL 사무국이 가정 폭력이나 성범죄와 연관된 풋볼 선수들과 비교하여 패트리어츠와 탐 브래디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힐리 법무장관은 보스톤 헤럴드의 인터뷰에서 "디플릿게이트 조사에 투입된 돈과 시간, 에너지를 알고 있다"며 "과거 NFL 사무국이 가정 폭력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선수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번 일과 비교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NFL 사무국은 일을 처리하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힐리 법무장관은 NFL 사무국이 가정 폭력과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디플릿게이트에 대한 처벌을 보면 가정 폭력이나 성범죄를 막으려는 노력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FL 사무국은 지난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패트리어츠가 규정보다 공기 압력이 낮은 풋볼을 사용했다는 이른바 디플릿게이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4개월 가까이 진행된 조사 결과 탐 브래디가 부적절한 행위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디플릿게이트에 대한 처벌로 브래디는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고, 패트리어츠는 1백만 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드래프트 선택권 2개를 잃었다. 패트리어츠에 내려진 1백만 달러의 벌금형은 역대 NFL 팀 최고 벌금이며,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음주운전을 했을 때 풋볼 선수들이 2-4경기 출장 금지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브래디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다. 힐리 법무장관은 가장 최근에 가정 폭력을 일으켰던 레이브스의 러닝백 레이 라이스를 예로 들었다. 라이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약혼자와 딸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을 휘둘러 약혼자를 기절 시키는 CCTV 동영상이 공개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라이스의 경우 가정 폭력 사실이 알려졌을 때 최초로 내려졌던 처벌이 2경기 출장 정지였다.

힐리 법무장관은 NFL 사무국이 가정 폭력과 성범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원한다며 "경기장 내에서 일어나는 잘못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면 자라나는 어린 선수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 랜딩역의 완공 예상 그림

올스턴-브라이트 커뮤터레일역 공사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올스턴-브라이트 지역에 신설될 예정인 커뮤터레일 정류장 공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12일, 찰리 베이커 주지사와 뉴발란스, MBTA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새 정류장 건설 기공식이 열렸다.

올스턴-브라이트 지역에 새로 생길 커뮤터레일 정류장 이름은 보스톤 랜딩(Boston Landing)으로 지어졌다. 보스톤 랜딩역은 프래밍햄/우스터 노선에 위치하며 오는 2016년 가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최초 계획보다는 완공 시기가 2년 가량 늦어졌다.

보스톤 랜딩 정류장을 새로 짓는데 들어가는 공사 비용은 뉴발란스에서 부담한다. 브라이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뉴발란스는 운동화를 중심으로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세계적인 회사다.

베이커 주지사는 취임 후 대중 교통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위해 특별팀을 꾸려 MBTA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특별팀은 MBTA의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확장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다만 민간 자본을 끌어올 수 있거나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확장 공사를 해도 좋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스톤 랜딩은 뉴발란스에서 공사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보스톤 랜딩은 최초 계획 당시 공사 비용이 1,400만 달러에서 1,6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뉴발란스 자체 계산 결과 공사비용은 2천만 달러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하루 2번, 건강을 지키는 습관

- 기력회복
- 항암효과
- 감기예방
- 혈액순환 개선
- 당뇨 합병증 예방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가미신장 기능 개선
- 기억력 개선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고를 드세요.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 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Mix it SUSHI · NOODLE · GRILL

617.547.0212
Mixitrestaurant.com

FREE SPICY TUNA ROLL with purchase of any sushi \$30 or more

WE DELIVER lunch and dinner

Mix-it Sushi Noodle Grill | 1678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8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비치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학 3만부를 2월 말부터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배포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여행을 한층 즐겁게 할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후원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배포 업체에 당선을 초대합니다.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아 고객들을 위한 것으로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지금 신청이 대한 계층은 꼭우려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학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배포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엠트랙 탈선 원인은 과속 제한속도 2배로 곡선구간 달려

블랙박스 데이터 분석중
기관사 조사는 수일 내로 진행

열차 과속 제어하는
PTC 장착 예산 삭감 논란



여객열차 엠트랙(AMTRAK) 탈선 사고 현장의 13일 모습

(필라델피아 로이터=뉴스1) 이준규 기자 = 지난 12일 탈선으로 7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친 미국 여객열차 엠트랙(AMTRAK) 188편이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2배 이상 초과한 과속상태로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로버트 셉알트 위원은 13일 "열차가 곡선 구간에서 허용된 최대속도인 시속 50마일(약 80km)을 크게 넘긴 시속 102~106마일(약 164~172km)의 속도로 달렸다"며 "기관사가 곡선 구간을 본 후 비상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속도가 매우 조금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셉알트 위원은 "이 과정에서 결국 차량이 탈선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며 "고급 안전장치인 '능동적 열차제어(PTC)' 시스템이 장착돼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셉알트 위원은 사고 원인 분석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기관사 인터뷰와 블랙박스 분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사는 매우 큰 정신적 외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1~2일 동안의 시간을 줄 것"

이라며 그러나 기관사 인터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일 내로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박스는 파손된 차체에서 수거된 현재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며 차량 정면에 부착된 카메라 영상 기록도 분석되고 있다.

NTSB는 과속 외에도 선로의 상태와 신호장치 이상, 열차 승무원들의 훈련 상태 등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NTSB의 현장 조사는 약 1주일 가량 지속될 예정이다.

엠트랙 북동부 노선에서 운영되고 있는 188편은 238명의 승객과 5명의 승무원을 태운 채 12일 오후 9시30분경 워싱턴 D.C.를 출발해 뉴욕으로 가던 도중 필라델피아 포트 리치먼드의 급커브 구간에서 선로를 벗어났다.

총 7량 중 기관차는 선로를 이탈하면서 객차와 분리됐다. 나머지 객차 6량 중 1량은 완전히 뒤집혔으며 3량은 옆으로 누웠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탈선 당시 충격으로 탑승자들의 소지품과 열차 파편

이 곳곳으로 흩날렸으며 승객 7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쳤다.

연간 1200만명이 출퇴근길로 이용하는 사고 노선은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PTC는 열차가 위험구간에서 과속으로 달릴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동제어시스템이다.

현행법 상 미국의 모든 열차는 올해 말까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그러나 하원 세출위원회는 사고 다음날인 13일 다음 회계연도의 교통예산 중에서 엠트랙에 대한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모든 여객열차에 PTC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에 8억2500만달러(약 9057억원)를 추가로 투입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findlove@news1.kr



전체 50개주 중 하와이,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본토의 1/3에 달하는 지역이 AI에 감염됐다

'치킨에볼라' 확산... 네브래스카 16번째 주 전국 1/3이 감염

(시카고 로이터=뉴스1) 이준규 기자 =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AI)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에서 16번째 감염 주가 나타났다. 이로써 전체 50개주 중 하와이, 알래스카를 제외하면 본토의 1/3에 달하는 지역이 AI에 감염됐다.

미국 농무부는 네브래스카 딕슨 카운티에 위치한 닭 170만 마리를 사육하는 한 양계장에서 H5N2형 조류독감 감염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그렉 이바크 네브래스카주 농무부 국장은 "불행하게도 네브래스카가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지역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며 "현재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장은 격리됐으며 모든 가축은 살처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류독감이 어떻게 네브래스카로 유입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민들과 관계 당국은 앞서 39개의 농장에서 2400만 마리 이상이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이웃 아이오와에서 전염됐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류독감의 확산세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지난 5일 AI확산을 막기 위한 3억3000만달러(약 3619억원)의 긴급자금 투입을 승인했다.

아울러 감염이 확인된 각 주들도 농장 격리와 신속한 살처분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미국내 최대 칠면조 생산지인 미네소타도 조류독감의 타격을 입으면서 추수감사절 식탁에 칠면조 요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내에서 발견된 조류독감은 모두 고병원성 H5형이다. 높은 전염성과 치명성으로 인해 '치킨 에볼라'라고 불리는 변종이다.

H5N2형은 아칸소,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오리건, 워싱턴, 위스콘신 등에서 감염이 확인됐다.

H5N8형은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오리건, 워싱턴 등에서 나타났다.

H5형은 현재까지 사람에게는 감염된 사례가 없다.

findlove@news1.kr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 미주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화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급도 상업용이며 물결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ACTON

For Sale: \$ 22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군이 좋습니다.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석유시장 1차 전쟁, OPEC가 미국 이겼다

IEA 보고서 "석유시장 쟁탈전쟁 이제 시작단계 불과"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김남권 기자 =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이자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주축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고비용의 미국 셰일 생산업자를 압박하는 전략이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사우디의 한 관계자는 "지난 몇 개월간 유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미국 셰일과 같은 비싼 석유에서 등을 돌렸다고 평가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국제 유가는 지난해 말 사우디아라비아 등 OPEC 주도국들이 '가격 지지에서 시장 점유율 고수'로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급락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배럴당 115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올해 초 40달러대까지 급락했다. 최근 반등세를 보인 유가는 60달러선까지 회복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이날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유가 하락을 감수한 OPEC 전략이 어느 정도는 먹혔다며 그간의 유가 약세 충격으로 미국의 셰일 생산이 이달에 하루 평균 8만 배럴 감소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난해 11월 산유량 동결로 시작된 OPEC와 미국 등 역외 산유국간 시장 쟁탈전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IEA는 러시아와 브라질, 중국 등 OPEC 외의 산유국 생산도 증가했다는 점에서 "시장(점유율)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이라크 유전(AP=연합뉴스 자료사진)

IEA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달 생산이 예상 외로 하루 평균 18만 배럴(연율 기준) 늘었으며, 브라질도 지난 1분기 17% 증가했다.

중국,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도 산유량이 늘었다.

중국은 10만 배럴이 증가해 올해 평균 43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IEA는 관측했다.

보고서는 "OPEC가 이겼다고 말하는 시기상조"라면서 "이제 (본격적인 싸움) 막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OPEC 역외 산유국의 올해 증산 전망치를 하루 평균 20만 배럴에서 83만 배럴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IEA는 이어 OPEC 역외 산유국의 생산비용 감축 노력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OPEC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 쿠웨이트 및 아랍에미리트(UAE)도 모두 석유 시추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시장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코메르츠방크의 프랑크푸르트 소

재 유진 베인베르그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는 블룸버그에 "1차 싸움에서는 OPEC 승리라고 한다면, 2차 승리는 셰일유 업계가 가져갈 것"이라면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웃돌면서 셰일유 생산 채산성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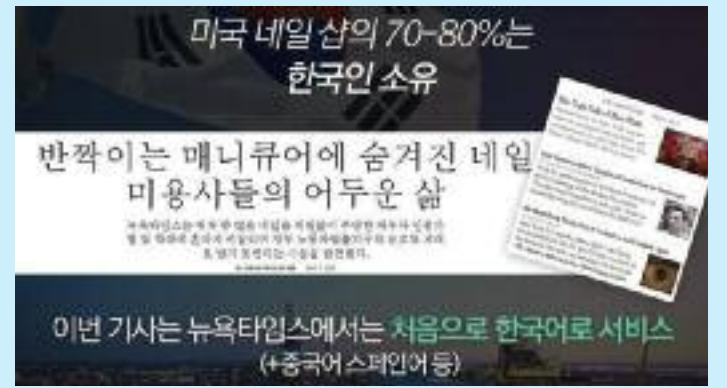
IEA 보고서는 사우디가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실질 산유량을 하루 1천만 배럴 이상으로 유지했다면서, 이것도 시장 점유율 고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우디의 최근 생산량을 봤을 때 '감산 불가'를 외친 OPEC의 입장이 다음 달 5일 열리는 OPEC의 석유장관 회담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12일 OPEC와 러시아, 브라질 및 멕시코 등 주요 OPEC 역외 산유국이 빈에서 비공개 실무 접촉을 가졌다고 복수의 OPEC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OPEC는 지난해 11월 각료회담 직전에도 이들 역외 산유국과 접촉했다.

jksun@yna.co.kr



뉴욕 주지사, '네일샵 노동착취' 조사 TF 구성 긴급대응 지시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네일살롱을 대상으로 노동착취 및 차별 여부 실태조사를 포함한 긴급대응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고 AFP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네일살롱 업계의 불법 행위와 노동자들의 위험에 노출된 근로 조건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즉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뉴욕타임스(NYT)가 한국인이 주도하는 뉴욕 네일살롱의 노동착취와 임금차별을 다룬 기사가 보도된 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이민자들이 노동착취와 임금차별 등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네일샵의 70~80%는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이와 관련 쿠오모 주지사는 네일살롱이 사용하고 있는 매니큐어 등에 들어있을 수도 있는 유해 화학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직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무허가로 운영하는 업체를 단속하고 악덕 업체의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네일살롱 직원들은 장갑과 열

굴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이는 제품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로 감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네일살롱은 임금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한 고지문을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로 만들어 게시하도록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우리는 노동자들이 얻은 임금이 착취당하거나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강탈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시민권 보유 여부나 인종에 상관없이 불법 고용주에 의해 희생되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맨해튼 소재 네일샵의 평균 가격은 10.5달러로 미국 전체 평균의 두배다. 그러나 뉴욕타임스가 인터뷰한 100여명의 종사자 가운데 25%만 뉴욕 주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의 경우에는 아예 현금으로 100~200달러의 훈련비를 업주에 지불했다. 또 길게는 몇 달간 무보수 견습 훈련을 진행하고 하루 최대 12시간을 일하고도 40달러 정도만 임금으로 받아온 사실이 폭로됐다.

ejjung@news1.kr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Wellesley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휴일없는 미용실
Bliss Image

봄날의 싱그러움을 찾아 드립니다

- 남녀헤어
- 피부관리
- 네일
- 제모
- 속눈썹 연장
- 바디 마사지
- 영구화장

11A Corinth St. Roslindal MA 0213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96

Business Hours:
Mon-Sat: 9am - 7pm
Sun: 9am - 6pm
미용사 구함

손영권 치과
Young Dentistry, PC

좋은 치과
좋은 치아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문재인, 계파갈등 수습 본격화...비주류 기대에 못미쳐 '난항'

정청래, 최고위 출석정지 조치 후 '민집모' 등 의견 수렴나서

민집모 "문 대표, 위기라는 느낌 안 와"... 파격적 해결책 요구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제의 없어..." 당내 혼란 수습이 우선

(서울=뉴스1) 김현, 박상휘, 서미선, 박소영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3일 4·29 재보선 패배와 이어진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사퇴' 발언에 따른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사태 해결 기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문 대표는 일단 논란의 중심에 선 정 최고위원에 대한 최고위 출석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당내 의원 모임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비노·비주류가 동의할 해법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앞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요구했던 원탁회의 구성과 함께 주요 당직자에 대한 전면 교체 등이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형국이다.

문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비주류 모임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당내 내용을 수습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오찬에서는 문 대표와 참석자들의 인식의 차이가 크게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보는데 문 대표가 그렇게(위기라고) 생각하는 건지 느낌이 잘 오지 않더라"고 전했다.

당장 이날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지속과 최고위 출석정지 조치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 일부는 정 최고위원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오찬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은 "대표로서 (정 최고위원을) 강력하게 징계하든 출당시키든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그냥 덮고 가다보면 되겠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에 대한 출당 요구까지 나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오찬에 참석했던 김영환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정 최고위원 막말 등 일련의 사태 수습을 위해 내놓은 '출석 정지'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친노와 반노간 갈등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새정치연합의 근간인 호남이 균열됐으며, '이기는 정당론'도 붕괴됐기 때문"이라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문 대표의 발언과 친노 핵심으로 분류되는 노영민 의원의 인터뷰 발언이 겹친 것을 언급, "비선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선의 존재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정무적 판단이 문제다. 선거 때도, 재보선 참패 후 사태 수습에 있어서도 자주 실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당내에 특권정치와 패권 정치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4·29 재보선 전과에 따른 문 대표 거취 표명 요구가 수그러들던 차에 예상치 못했던 '공갈 사퇴'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당내 계파간 갈등이 더 크게 확산되자 좀더 과격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문 대표는 당내 계파들이 모두 수습할 수 있는 쇄신책을 내놓지 않으면 현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로 몰린 상태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가) 개혁과 혁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2주가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없다"며 "문 대표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문 대표를 압박했다.

비노계의 유력 인사 중 한명인 김한길 전 공동대표도 연일 "오로지 친노의 좌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가볼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야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 역시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렇게 미루지 말고 대표가 빨리 결심하고 알려야 한다"고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결국 문 대표가 특단의 대책을 들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공갈 사퇴'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퇴장하고 있다.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당내에선 문 대표가 이날 사실상 정 최고위원의 직무정지를 조치하면서 본격적인 수습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표 주변에선 핵심 당직자에 대한 일괄 사퇴 등 인적 쇄신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비주류 진영에서는 "인적 쇄신은 기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내년 총선 공천의 투명성 강화 등은 물론 대표직 사퇴까지 언급되고 있다.

문 대표 주변에선 주승용 최고위원이 문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요구했던 당내 지도자급과 대선 예비주자가 참여하는 원탁회의 구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비노 등 비주류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다.

앞서 4.29 재보선 과정에서 동교동계의 지원 거부 논란이 불거지면서 문 대표가 원탁회의를 소집했지만 김한길

전 공동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미 없이 끝나고 후속 모임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안철수 전 공동대표에게 당 인재영입위원장직을 제안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제안이 오가지도 못한 상태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인재영입위원장직 제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 11일 문 대표를 만나 얘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인사 제안 요청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인재영입위원장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제안을 보고 생각해봐야겠다"면서도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나눌 단계가 아니라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게 최우선이다"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gayunlove@news1.kr

'공갈사퇴' 정청래, 본회의장 옆자리 주승용 손 잡았지만

12일 본회의 출석 주승용에게 다시 한번 사과... 불편한 심기 여전

(서울=뉴스1) 박태정, 서미선 기자 =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내 분란의 중심에 선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12일 나흘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주승용 최고위원을 찾아가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을 위해 지역구인 전남 여수에서의 집거를 마치고 상경해 본회의장에 출석한 주 최고위원 곁으로 다가갔다.

정 최고위원이 주 최고위원의 손을 잡고 사과하는 모습은 뉴스1 카메라에도 포착됐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 최고위원의 자리는 주 최고위원의 왼쪽에 나란히 붙어 있다.

주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의

약수 신청에 일단 손을 잡아 주긴 했지만 시선은 정 최고위원이 아닌 정면을 응시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노출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내 당내 혼란이 고민이더라도 한 듯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였고 옆 자리의 정 최고위원 역시 어색한 표정이 역력했다.

주 최고위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문재인 대표 역시 두 최고위원의 대화를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옆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형님, 둘이서 따로 봅시다"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정 최고위원은 전남 여수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모든 걸 떠나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렸고 본인도 사과를 수용했다"면서 "이런 일은 둘만 만나서 풀 건 풀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비행기도 안 타고 제 차를 타고 갔다"고 설명

했다. 이어 "그게 어떻게 알려져서 둘이 못 만났다. 둘이 만났으면 좀 허심탄회하게 소수도 한잔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주 최고위원이 사퇴 철회를 하지 않은데 대해선 "주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쉽게 마음이 풀리겠냐"면서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그러시구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내 논란을 촉발시킨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지역구에 내려가 있던 주 최고위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전날(11일) 전남 여수를 직접 찾았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불발됐으나 정 최고위원이 전화통화로 사과 의사를 표명했고 이를 주 최고위원이 받아들여면서 어느 정도 앙금이 해소되는 듯했다.

eriwhat@news1.kr

정청래 '당 결정 존중...', 자숙할 것'

"어떤 선택이 당 화합에 보탬될지, 부담 덜 수 있을지 고심했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홍정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3일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분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자숙하겠단 제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금 어떤 선택이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보탬이 될 것인지, 또 어떤 선택이 당의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고심했다"며 이러한 입장을 피력했다.

문재인 대표는 앞서 이날 '공갈 사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상 '직무정지' 카드를 뽑아 들었다.

그러나 당사자인 정 최고위원은 문 대표의 '자숙' 권고 발표 이후 취재진과 만나 "그렇게 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

"(직무정지는) 결정된 바도 없고, (문 대표가) 제안한 바도 없다. 정치적 발언을 덜 하자는 것이고 당분간 자제하겠다"고 해석을 달리했었다.

이에 문 대표는 정 최고위원이 나간 뒤 비공개 최고위를 거쳐 "(정 최고위원의 최고위) 출석을 정지시키겠다. 윤리심판원 회부 건에 대해선 당헌당규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정 최고위원 스스로 밝힌 자숙 내용이 미진하다고 본다"고 '출석 정지' 조치를 내렸다.

smith@news1.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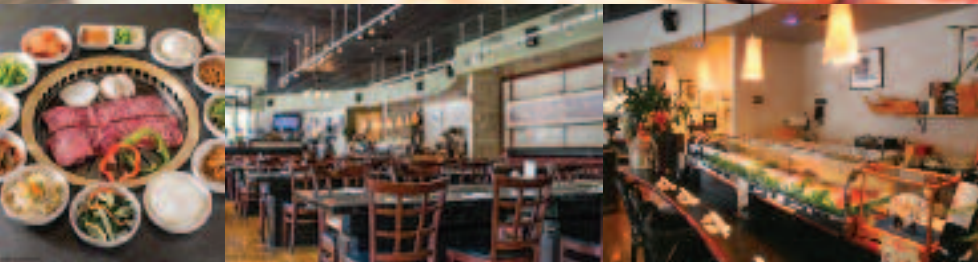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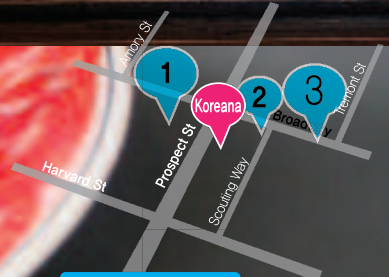
BEST OF BOSTON
2000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무코타
트리트먼트**

디지털 펌
매직 펌
케라틴
레귤러 펌
하이라이트
헤어컷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공무원 연금법' 답답한 여, 청 압박에 폭발 직전

청 연일 강공에 정면돌파 태세

"5월 2일 여야 대표 합의 지킬 것... 누구도 관여 못해" "정부도 입장 내라"

(서울=뉴스1) 김유대, 김영신, 유기림 기자 = 연금 정국의 탓에 걸린 새누리당 지도부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명기 문제에 대한 야당의 완강한 반대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연일 연금 관련 발언을 쏟아내자 여당이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 다.

특히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논란이 하나로 묶여 평가절하 되는 점에 서운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이 총대를 메고 나름대로 평가 받을만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이끌었음에도 이에 대한 공로는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연금 논란의 책임을 당에 묻고 있기 때문이다.

당·청 충들을 의식해 그동안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던 김 대표와 유 원내

대표는 최근 청와대를 향해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면 돌파할 태세다.

김 대표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담은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안"이라며 "대화와 양보를 통해서 공무원과 국민 간 불신을 상당 부분 해소할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또한 "공무원연금법 내용을 갖고 잘됐나 못됐나를 말해야 한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갖고 옳고 그르냐를 이슈 파이팅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부터 '협상 재량권'을 언급하면서 지난 2일 여야 대표 합의문과 관련해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도 "과연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내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참견이 교착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여야 협상 상황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청의 기류 변화가 있기 전에는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전에 가능한 것은 야당이 소득 대체율 50% 명기를 포기하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한 오는 17일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과 관련한 사안을 의제로 삼아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청와대

와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이 다 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날 한번 제대로 토론해보겠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 입장에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강경 기류를 유지하고 있는 점 역시 부담이다.

새정치연합의 당 내분 양상과 맞물려 유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명기 문제 등과 관련해 타협의 여지를 열어두지 않고 대야 협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전략적으로 강경 기류를 이어갈 경우 유 원내대표로서 정국을 풀만한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연금 논란과 관련해 원칙론을 고수하며 정치권을 압박해 협상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이제부터는 예측하지 못한다"고 복잡한 여야 대치 구도를 설명했다.

ydkim@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MAY 15TH - MAY 21ST,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SUMMER TIME
Ready. Set. Save
SUMMER
HOTTEST SALE

여름시작! 마트와 함께하는 초여름 세일전
 Enjoy BBQ, cold noodles, ice pops and so much more.
 Come start the tradition of **SUMMER** fun!

FRI./SAT./SUN ONLY 15/16/17 ONLY 아툴포 망고 박스 ATAULFO MANGO box \$11.99	FRESH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용 생삼겹살 lb. \$6.99	한국 참외 KOREAN MELON box \$17.99	FROZEN 냉동 오징어 ILLEX SQUID 450-600's lb. \$1.99
풀무원 냉면 PULMUONE KOREAN STYLE COLD NOODLES All Varieties/15.2 - 35oz. \$5.99	델몬트 DEL MONTE JUICE DRINK All Flavors/8.1fl.oz. \$0.99	해태 누가바 HAI TAI NOUGAT ICE BAR 2.36fl.oz. x 8ea./box \$3.99	BAMBOO SEAT CUSHION WITH LUMBAR SUPPORT 차량용 대나무 시트 ea. \$6.99

종가집
ENJOY KOREA'S FAVORITE KIMCHI HERE IN AMERICA!
 Made with 100% Korean ingredients.
CHONGGA Kimchi offers taste you can trust!
 100% 한국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대한민국 대표김치, **종가집 김치!**

日本食の祭
2015 Japanese Food Festival
일본 대표상품 모음전
 Come and enjoy all the festivities at Hmart's 2015 Japanese Food Festival, where the best of Korea and Japan come together as one.
MAY 15th - MAY 17th, 2015
 Only at Hmart Burlington Store

ENJOY WAFFLES KOREAN STYLE
 Crispy, sweet...such a treat to eat!
 바삭하고 달콤한 해오름 쫄면병~

Picnic in the park
SAVINGS
 Want E-Coupons in your inbox? Confirm your email address at any local Hmart!
 각종 할인이 담긴 마트 봄 쿠폰북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Smart Card Members Only

USDA ORGANIC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버섯 8oz./pkg. \$3.99	FRI./SAT./SUN ONLY 15/16/17 ONLY Scallion 파 bun./for 2\$1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49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바베큐용 돼지갈비 lb. \$2.99	FROZEN 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양지 슬라이스 lb. \$6.99	FROZEN 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불고기용 냉동 돼지고기 lb. \$5.99
Marinated Tenderized Sliced Beef Rib Eye Steak 양념 볶집 등심 스테이크 lb. \$6.99	FROZEN JEJU Yellow Croaker 제주 황금빛 참굴비 3호 37.47 lbs. \$12.99	FRI./SAT./SUN ONLY 15/16/17 ONLY Bag of Mussels 자루 홍합 2 lbs./bag \$2.49	FROZEN 금병어 Golden Pompano lb. \$3.49	FROZEN HAI OREUM Premium Oyster 해오름 청정생굴 8oz./pkg. \$3.49	CHG Cooked Seasoned Loach Soup 춘향굴 사림들 추어탕 15.8oz. \$6.99
MON - THU ONLY 18/19/20/21 ONLY KAGAYAKI Premium Short Grain Rice 카가야키 쌀 15 lbs. \$19.99	MON - THU ONLY 18/19/20/21 ONLY HAI OREUM Roasted Seaweed 해오름 밥도둑 도시락김 Original/Parae 0.15oz. x 8ea./pkg. \$2.99	MON - THU ONLY 18/19/20/21 ONLY OSAKI BRAND Fish Cake 오사키 게맛살 1.1 lbs. \$4.99	MON - THU ONLY 18/19/20/21 ONLY ITOEN Tea Drink 이토엔 티 드링크 67.6fl.oz. \$2.99	주말시식코너 FRI.-SUN SAMPLING EVENT KTOWN Bibimbap/Japchae 케이타운 비빔밥/잡채 9.87 - 10.86oz. \$3.99	SEMPIO Soy Sauce Jin Gaud S 샘표 진간장 금S 60.8fl.oz. \$5.99
HAECHANDLEE Seasoned Soybean Paste 해찬들 쌈장 2.2 lbs. \$3.99	주말시식코너 SAT.-SUN SAMPLING EVENT SA ONG WON Deep Fried Seaweed Roll 사옹원 김말이 튀김 Original/Spicy - 1.12 lbs. \$4.99	HORMEL FOODS Spam 스팸 Classic/Lite/ 25% Less Sodium - 12oz. ea./for 2\$6	WOOD PATTERNED Indoor Floor Mat 거실용 나무 무늬 매트 150cm x 200cm/ea. \$19.99	차량 앞유리 햇빛 가리개 Collapsible Windshield Sun Shade ea. \$2.49	ZOJIRUSHI Micom Elec. Rice Cooker & Warmer 조지루시 마이콤 전기 밥솥 NS-LAC05XA/3cups/ea. \$119.99

'유서대필' 사건 판검사들은... '승승장구' 중

강력부 부장검사였던 강신욱은 대법관에 박근혜 대선캠프

주임검사 신상규 변호사도 요직 거쳐...법관들도 요직 거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서울=뉴스1) 김수환 기자 =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에서 수사를 담당하거나 지휘한 검사들과 재판관을 맡았던 법관들은 요직을 두루 거치며 법조계, 정치권 등에서 출세거도를 달렸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철씨가 1991년 5월 분신자살하자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는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것에 대한 대학생들의 항의성 분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면 전환용'으로 유서대필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또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강압, 욕설 등이 있었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됐다.

당시 유서대필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력부 부장검사는 강신욱(71) 전 대법관이다. 강 전대법관은 200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대법관 인사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유서대필 사건에서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당했다.

이후 강 전대법관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특보단장을 역임했다.

주임검사였던 신상규(66) 변호사는 서울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 2차장, 서울지검 3차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광주고검장 등 요직을 거친 후 지난 2009년 일선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당시 강력부 소속 검사들이었던 남기춘(55) 변호사, 곽상도(56)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도 역시 요직을 두루 거쳤다.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열린검증소위원장을 맡았다.

곽 이사장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역임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일

했다.

또 김기춘(76) 당시 법무부 장관은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이번 정권에서는 1년6개월 동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한편 유서대필 사건의 재판을 맡아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법관들도 역시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1심 재판장이었던 노원욱(79) 변호사는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2심 재판장이었던 임대화(73) 변호사는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제주지법 원장, 춘천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또 부구욱(63) 영신대학교 총장은 당시 2심 재판에서 배석판사로 있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로스쿨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 주심 재판관이었던 박만호(79) 변호사는 2002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abilitykl@news1.kr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강기훈 변호인' 이종걸 "이제서야 정리돼 마음 무거워"

(서울=뉴스1) 김현, 서미선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4일 대법원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비도덕적인 독재정권의 형식적인 끝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는 이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인 유서대필 사건이 이제서야 정리된 것에 대해 너무 마음이 무겁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당시 가장 비도덕적인 독재정권 방식의 공격이 유서대필 사건으로 이뤄졌고, 공안통치의 검찰이 저지른 새로운 드레퓌스 사건이었다"면서 "저도 힘겨운 싸움을 같이 한 사람으로서 당시 고통당했던 시간의 무게가 이제는 형식적으로 종

료된 독재정권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싹을 만들어나가는 데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은 자본의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독재(정권)보다 더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적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독자적이었던 독재정권이 이제는 힘을 잃었지만, 정권의 권위주의적 요소와 자본이 결합된 새로운 반인권·전근대적인 통치에 대해 우리가 또 다시 각성하고 대항해 진정하게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이를 계기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죄를 확정받는 데 24년이 걸렸다는 질문에 "강씨가 정신과적 질병까지 시달리면서 그간 겪었던 고통이 이번 결정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유서대필 사건' 무죄...강기훈 측 "정부·권력기관이 사과"

지지자들 "국가권력이 모의한 것, 치욕과 고통의 시간 보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인 강기훈(52)씨에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내리진 14일 강씨의 지지자와 소송 관계인들은 "사건 날조와 조작에 대해 정부와 검찰, 사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씨를 지지하는 단체인 '강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 50여명은 대법원 선고 직후인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국가권력이 모의해 폭력으로 날조하고 조작했을 뿐인데 길고 긴 치욕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강기훈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얻어낸 것"이라며 "정부는 정중히 사과하고 사건에 가담했던 사법부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강씨와 함께 오래 싸워온 함세웅 신부는 "고통속에서도 희망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사법부의 희망을 확인했다"며 "사법부가 새로 거듭나길 바라며 검찰도 스스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소송을 대리했던 송상교 변호사는 "사실 유서대필 유무만 가리면 되는 간단한 것인데 2007년 재심청구 이후 8년이 걸렸다"며 "강씨 본인의 건강도 안 좋을 시간에 쫓겼던 점, 과거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불법 행동이 있었고 무고한 시민이 유서대필자로 몰려 24년간 주홍글씨를 갖고 살았다"며 "변호인단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모임 회원들은 이날 대법원 선고가 있었던 1호 법정에 참관해 선고 결과를 직접 지켜봤다. 김창석 대법관이 '상고기각'을 말하자 밖으로 나가며 서로 등을 두드리며 악수를 나누는 등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사자인 강씨는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

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현재 간암, 간경화 등으로 투병 중인 강씨는 선고 3~4일 전부터 주변과 연락을 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

고 받았던 강씨가 낸 재심 사건에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1991년 5월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만에 완전히 누명을 벗게 됐다.

dhspeople@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다 죽이고 싶다" 유서남긴 예비군 총기난사...3명 사망

사격훈련 중 갑자기 뒤돌아 7발 발사 뒤 자살

유서 발견 "내일 사격훈련, 다 죽이고 나도 죽고싶다" 범행 계획

예비군 사격훈련 통제, 관리 허점 투성이 논란 일듯

(서울=뉴스1) 조영민 기자 =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훈련을 받던 예비군 한 명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가해자 최모(23)씨가 사건 전날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서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이고 나도 죽고싶다"는 내용이 발견돼 최씨가 사전에 범행을 결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은 이날 "오전 10시 44분경 송파·강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최모(24)씨가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 한 명은 총기를 난사한 최씨로 자살했으며, 나머지 예비군 한 명은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중인 예비군이 총기 난사를 일으키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예비군 훈련사에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날 육군의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수준유지사격훈련 중 총기를 난사했다. 수준유지 사격은 총기의 '영점'을 조정하면서 실시하는 사격이 아니라

일정량의 실탄을 중간 영점조정 없이 연달아 쏘는 훈련이다.

사격 훈련장에는 모두 20개 사로가 있었으며, 최씨는 가장 왼쪽의 1사로에 위치해 있었다. '엎드려봐' 자세를 취하고 있던 최씨는 사격개시 명령이 떨어지자, K2 소총으로 일단 1발을 표적을 향해 발사했다.

이어 갑자기 일어나 뒤에 있던 부사수와 오른쪽으로 엎드려있던 다른 사수들을 향해 모두 7발을 발사했다.

총기를 난사한 최씨는 자신의 이마에 대고 총을 발사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최씨가 난사한 총에 2,3사로에 있던 예비군 4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가운데 3사로에 있던 예비군 박모(25)씨는 삼성의료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도중 숨졌다. 두부와 폐 등에 중상을 당했던 윤모(25)씨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9시 37분 끝내 숨졌다.

나머지 2명의 부상자 안모(26)씨와 황모(23)씨, 윤모(25)씨는 삼성의료원과 국군수도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 각각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군 수사당국은 이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입고 있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메모지 두쪽 분량의 유서를 발견했다.

최씨는 유서에서 "왜 살아가는 지 모르겠다. (중략)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고싶다는 생각이 강박증으로 되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늙어가는 나의 모습이 싫고 나의 현재 진행형도 싫다"며 사건 전날의 심경을 표현했다.

그는 특히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고 밝혀

사전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예비군 내 사격훈련에 대한 관리 상태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훈련대상 예비군은 545명 가운데 200여명이 사건 당시 사격장에 있었으며, 이들을 통제하는 인원은 통제관 3명(대위)과 조교 6명이 있었다.

통제관들은 사격장 뒷편 통제탑에 있었으며, 조교 6명이 20개 사로에 나눠 사격훈련을 관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관계자는 "예비군 사격훈련에 통제인원 몇명을 배치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은 없다"며 "부대별 가용 병력이 다르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또 사격 훈련에 쓰이는 총기 규정과 관련해서도 "사격 시 총기를 안전고리로 고정시키는 데 최씨가 고리를 풀었는지 여부는 확인중에 있다"며 "총기 고정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총기 난사에 대한 직접적인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최씨는 육군 5사단에서 군복무를 했으며, 군복무 당시 B급 관심병사였다고 군 당국이 확인했다.

최씨는 부친 없이 모친 밑에서 자랐으며, 2013년 10월 전역해 이번 훈련이 두번째 예비군 훈련이었다.

군 관계자는 "최씨가 동원훈련을 받던 다른 예비군들과 갈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역 시절 관심병사였던 장병이 전역 뒤 예비군에 편성되는 과정에서 현역시절 자료가 전달되는 시스템은 현



13일 총기난사 사고가 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정문 앞. 육군은 훈련을 받던 예비군 한 명이 총기를 난사한 뒤 그 자리에서 자살하고, 주변에 있던 예비군 4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재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심병사의 예비군 훈련 참가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유서 전문]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수없이 내 머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것 같다. 하기 싫고 힘들고 그럴때 잠이라는 수면을 하면 아무 생각도 안나고 너무 편하다. 깨어있는 게,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인다.

내 자아감, 자존감, 나의 외적인 것들, 내적인 것들 모두 싫고 낮은 느낌이 밀려오고 그렇게 생각한다.

죽고싶다. 영원히 잠들고 싶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박증으로 되어간다.

나는 늙어가는 내 모습이 너무 싫고 나의 현재 진행형도 싫다. 그래서 후회

감이 밀려오는 게 GOP때 다 죽여버릴 만큼 더 죽이고 자살할 걸, 기회를 놓친게 너무 아쉬운 것을 놓친게 후회된다.

아쉽다. 75발 수류탄 한 정, 총 그런 것들이 과거에 했으면 후회감이 든다.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

내가 죽으면 화장말고 매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 완전히 백골화가 되면 가루를 뿌리던가 계속 매장하던가 했으면 한다. 왜냐하면 인생 살면서 수많은 신체의 고통이 있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화상당했을 때와 화생방했을 때 죽어가는 과정이란 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여 죽는 게 두렵다.

그게 가장 두렵다. 그래서 죽어있으면 화장하게 되는 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예 없지만 화장이란 과정자체는 훼손 및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모든 상황이 싫다. 먼저가서 미안하다.

bin1981@news1.kr

'총기난사' 최씨 유서보니... "연쇄살인범과 공통된 필적"

필적 통한 성격 분석 전문가 "충동적·성격 급하고 우울증 성향 발견"

(서울=뉴스1) 박현우, 정재민, 양새롬 기자 = 예비군 훈련 도중 총기를 난사해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23)씨 유서에서 연쇄살인범들의 필적에서 보이는 성향이 발견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등을 지낸 구본진 변호사는 최씨가 쓴 유서를 본 뒤 "충동조절이 잘 안되고 성격이 급했을 것"이라며 "연쇄살인범들이 글씨를 쓸 때 보이는 성향도 발견됐다"고 14일 말했다.

구 변호사는 "글씨의 크기가 작고 크고를 왔다갔다 하는데 이는 충동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향"이라며 "리자 등을 쓸 때 굉장히 빨리 쓴 흔적이 나오는 걸로 봐서 성격도 급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씨 크기가 고르지 않은 사람들은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범죄를 저지러 가능성이 높으며 글씨를 한 획 한 획 '완전하게' 쓰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성격이 급했을 것이라는 게 구 변호사 분석이다.

구 변호사는 또 "세로획이 똑바로 내려오지 않고 왼쪽으로 약간 굽는데 이는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성향"이라는 분석도 했다.

특히 최씨의 유서에선 연쇄살인범들의 필적에서 종종 나타나는 특징도 발견됐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글자들이 다른 글자 간격이나 행 간격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글씨를 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으며 외국 연쇄살인범들의 필적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된다"며 "최씨 유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실제 최씨 이웃주민들에 따르면 최씨는 평소 소에 윗웃을 자주 벗고 다니며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소

리를 지르는 등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 등을 보였다고 한다.

구 변호사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지낸 뒤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범죄자들의 필적을 오랜 기간 연구해온 그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9년 '필적은 말한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범죄심리학자 등 다른 전문가들은 최씨가 '관심병사', '왕따' 생활 등을 경험하며 쌓인 좌절이나 증오로 인해 '외상 후 울분장애'를 겪다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측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씨의 경우 '외상 후 울분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 같다"며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자신이 차별이나 무시를 받고 있는데 그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로 돌리고 전혀 무고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피해의식이 크게 작용해 그럴바에야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극단적으로 생각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23)씨의 유서

하고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씨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간적인 좌절이 아니라 오랜기간 동안의 좌절을 갖고 있다"며 "군시절 관심병사와 왕따 등을 겪는 등 사회부적응을 겪었는데 이런 군에 대한 증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최씨의 경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기가 살아남아도 자기에게 남은 건 처벌 뿐이란 걸 알기에 자살을 선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hwp@news1.kr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파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가족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서울 on Beacon Hill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Dedicated to
Your Health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볼/여자컷 30볼/파마 70볼 부터
디지털 130볼 부터/케라틴 매직 220볼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타트업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아직 끝나지 않은 디플릿게이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 내 각종 언론 매체는 물론 인터넷 소셜 미디어는 풋볼 이야기로 들끓었다. 수퍼볼도 끝나고 NFL 드래프트도 끝났는데 풋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것은 이른바 디플릿게이트 때문이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규정에 못 미치는 바람이 빠진 풋볼을 사용했다는 디플릿게이트는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처벌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NFL 사무국이 쿼터백 탐 브래디에게 4경기 출장 정지, 패트리어츠 팀에는 100만 달러의 벌금과 드래프트 선택권 2개를 박탈한 다는 처벌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도 디플릿게이트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4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 디플릿게이트 논란을 시간대별로 살펴보자.

* 디플릿게이트의 시작

지난 1월 18일 패트리어츠는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콜츠를 상대로 45대 7,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경기 후 패트리어츠가 NFL 규정보다 공기 압력이 낮은 풋볼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경기 다음날 ESPN은 NFL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패트리어츠가 사용한 12개의 풋볼 중 11개 풋볼 공기압이 현저히 낮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NFL 사무국은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인 테드 웰스를 고용하여 패트리어츠가 의

도적으로 NFL의 규정을 어기고 풋볼의 바람을 뺐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 벨리치와 브래디의 인터뷰

수퍼볼이라는 큰 경기를 앞두고 빌 벨리치 감독과 쿼터백 탐 브래디는 디플릿게이트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벨리치 감독은 자신의 감독 경력을 통틀어서 풋볼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사용된 풋볼에 대해서는 브래디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벨리치 감독에 이어 다음날 기자회견을 한 브래디는 풋볼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수퍼볼 경기를 앞두고 로버트 크래프트 구단주는 만약 패트리어츠가 잘못된 일이 없다면 NFL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패트리어츠의 수퍼볼 우승

수퍼볼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디플릿게이트에 대한 NFL의 조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패트리어츠에 대한 의혹만 커진 상태에서 수퍼볼이 열렸다. 많은 이들의 의혹 어린 시선 등 경기 외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패트리어츠는 수퍼볼에서 극적으로 승리하였다.

크래프트 구단주는 수퍼볼 우승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풋볼에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는 말로 그동안의 심



NFL로부터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탐 브래디는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 항소를 신청했다

경을 대신했다.

* 웰스의 보고서와 NFL의 징계

웰스는 3개월이 넘게 걸린 조사 기간 끝에 5월 6일, 디플릿게이트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관계자 인터뷰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조사, 과학적인 실험 등을 거쳐 243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의 결론은 패트리어츠가 의도적으로 풋볼의 공기를 뺐을 가능성이 높다(more probably)는 것이다.

웰스는 디플릿게이트의 핵심으로 브래디를 지목했다. 브래디가 규정을 위반하도록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패트리어츠 직원들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의 정

황 증거를 통해 브래디는 최소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웰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NFL 사무국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벌금인 1백만 달러를 패트리어츠에 부과했고, 브래디에게는 4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 NFL 징계 발표 이후

디플릿게이트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패트리어츠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다면, NFL의 징계가 발표된 이후에는 오히려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경기에서 사용하는 풋볼의 공기압을 제대로 측정

하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NFL의 책임론과 디플릿게이트가 표적 수사로 진행되었다는 공정성에 대한 의혹,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만으로 처벌을 결정한 NFL의 판단 능력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브래디는 NFL의 처벌에 대해 항소를 신청했고, 크래프트 구단주는 법적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트위터 등을 통해 브래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브래디의 유니폼은 오히려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 한인야구리그 4라운드 경기 소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9일 열린 보스톤 한인야구리그의 제4라운드 경기에서는 브룩라인 빌리버스와 올스톤 슬래머스가 각각 승리를 거뒀다.

체스트넛힐 소재 캐시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이날 4라운드 매치는 오전의 브룩라인 빌리버스(Brookline Believers)와 캠브리지 바나나스(Cambridge Bananas), 오후의 올스톤 슬래머스(Allston Slammers)와 매스 워리어스(Mass Warriors)의 경기로 구성되었다.

1경기는 BB가 투타 조화 속 CB 전을 16-1로 승리하였다. BB는 3회를 제외한 모든 이닝에 득점을 올리고 경기를 7회만에 콜드게임으로 시즌 첫 승을 따냈다.

BB의 선발 데이비드 황 선수가 5이닝 동안 단 1실점만을 내주며 CB 타선을 쫓고 이어 등판한 풀유 선수는 마무리로서 2이닝 무실점, 타석에서는 홈런을 터뜨리며 투타에서 맹활약했다.

또한 BB는 앤디 황, 박영선, 황규정 선수가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총 13안타 16득점으로 타선의 응집력도 좋았다.

반면 CB는 선두타자인 스캇 노 선수가 솔로홈런 포함 2안타를 때려냈지만 후속 타자들이 침묵하며 패배의 멍에를 쓰고 말았다. 이로써 양팀은 각각 시즌 1승 2패, 승점 3점에 머물게 되었다. (승: 데이비드 황, 패: 서충훈)

오후에 펼쳐진 2경기는 AS가 폭발적인 타선을 앞세워 MW를 17-8로 제압했다.

AS는 MW의 선발을 상대로 2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4회까지 11득점으로 승기를 쥐었다. 4회까지 1점도 내지 못하며 11:0으로 끌려가던 MW는 바뀐 AS의 투수에게 5회 3득점하며 반전을 노려봤으나 이어진 7회 6실점하며 14점차, 콜드패의 위기까지 몰렸다.

8회에 MW는 5득점을 올렸으나 이미 승패와 관계가 없는 득점이었



2경기에서 홈런을 친 올스톤 슬래머스 아놀드 서 선수와 환호하는 팀 선수들

다. AS의 김용호 선수는 5타수 3안타(1홈런) 6타점 2득점 1도루로 맹타를 휘둘렀다. 김용호 선수는 홈런과 3루타 그리고 3루타를 차례로 때렸지만 단타 하나가 모자라 아깝게 사이클링 히트에 실패했다.

또한, AS의 아놀드 서 선수는 이번 시즌 처음으로 포수로 출장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도루를 시도하는 주자를 강한 송구로 잡아내는 등 8이닝 동안 홈을 완벽히 지켰고 타석에서는 4타수 3안타(1홈

런) 4타점 3득점으로 타격에서도 맹활약하며 이번 경기 MVP로 선정되었다. (승: 권영대, 패: 심준형)

bostonkorean@hotmail.com

스시 가맹점 안정된 창업



하루 주요 업무
스시바, 스시 제조 및 재고 관리
신선한 스시를 준비하고 패키지 하기
고객 서비스 및 고객과 소통
데모와 샘플링 제공
깔끔하고 잘 관리된 작업장 유지

에이스 스시는 미 전역의 주요 슈퍼마켓 200여 곳에 입점해 있는 프랜차이즈입니다.
현재 급성장 중인 에이스 스시가 함께 성장할 사업체를 찾습니다.
현재 우리는 보스턴 지역에 많은 체인점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매장 설립 및 투자 비용으로 사업주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착순으로 프랜차이즈를 배분하고 있으니 지금 즉시 연락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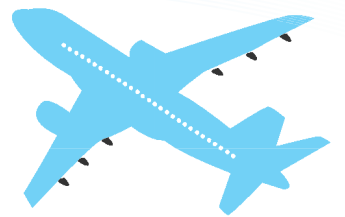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관심있는 분은 지금 바로 Amy Chuong에게 연락 주세요
Amy.Chuong@acesushi.com 310.327.2223 ext 17

보스턴 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휴람 제휴
이벤트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광학외과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1시간 정도)
기본검진, 백내장, 녹내장, AS(초음파) 초음파검사, 현탁액주입, 세균 수평에 검사
-25만원 → 20만원
- 4050라식라세 / 노안 수술 레이저 노안교정
-200만원 → 170만원
- 백내장 수술 (단안) 일반 백내장
근시 + 원시 + 백내장 동시교정
-150만원 → 110만원

속(?) “좁은 여자가 좁은 아름다다”

5% OFF

질 이완, 불감증, 요실금... 한번에 해결!

- 양귀비 수술 (시술시간 15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요실금 수술 (시술시간 20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이쁜이 수술 (3D리프트닝/임플란트/영동수술) 300만원
- 그 외 수술 : 음핵수술 100만원
소음수술 200~400만원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람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갱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만원 → 80만원

남성·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확대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질성형술, 정관수술, 정관박탈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전 윤곽술, 인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절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얼굴) -700만원 → 500만원	안면거상술 (목 포함) -800만원 → 600만원	매쉬 리프트 -300만원 → 300만원
상안검 -200만원 → 150만원	하안검 -200만원 → 150만원	중안면 거상 -300만원 → 200만원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Double Portals Korean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정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울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 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585
office: 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주일 예배: 오후 2:00 금요 모임: 저녁 7:30

이 작은 삶이 많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진배치 기뻐하며 (8월 31일)

담임목사: 우시창
안교회: (781) 715-0571 팩스: (781) 645-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12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중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보스턴 남부지역
보스턴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보스턴에는 보스턴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턴코리아는 보스턴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견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턴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bostonkorean@hotmail.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눈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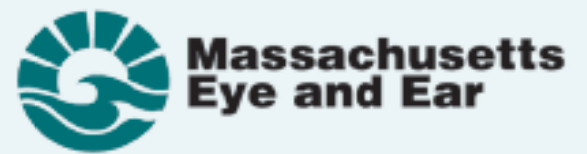
눈꺼풀 수술을 성형수술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자격증 있는 안과의사에 맡기십시오

- 기능적 눈꺼풀 수술 (졸린눈, 눈 찌르는 속눈썹 교정)
- 성형 눈꺼풀 (쌍꺼풀 수술)
- 보톡스, 레스틀린, 및 기타 주입 성형물

나영 그레이스 리 (Nahyoung Grace Lee), M.D.

그레이스 리 박사는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USC 도헤니 눈 연구소에서 수련의를 지냈습니다.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에 능통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Boston and Waltham Locations • 617.573.5550 • MassEyeAndEar.org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498회

딸아이의 대학원 졸업을 축하하며...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시간이 참으로 빠르다.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니 세월도 빨리 가는가 싶다. 딸아이가 대학(Brandeis University)에서 Islamic and Middle Eastern Studies를 전공하고 2012년에 졸업을 했다. 그리고 직장생활하다가 대학원(Boston University)에 입학해 교육학을 전공하며 2015년 5월에 대학원 졸업을 하게 되었다. 한 몇 달은 보스턴 시내의 Cambridge High School에 교생 실습을 나가 11학년을 맡아 아이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Prom Party에도 참석해 드레스도 하나 장만해 입고 즐겁게 보냈으며 헤어짐이 아쉽다고 하는 것이다.

딸아이를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다. 엄마가 보기에 아직은 철없어 보이는데 제가 맡은 일을 해나가는 것이 그저 고마울 뿐이다. 부모로서 어린 자식이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일 게다.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그랬듯이 나 역시도 부모의 자리에 있다 보니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고 가끔은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기도 하다. 그것이 또한 사람 사는 냄새가 아닐까 싶다. 엄

마보다도 아빠를 더 좋아하는 딸아이는 가끔 엄마에게 할 얘기도 아빠와 나눌 때가 있어 서운하지만 모른 척 지나가기도 한다.

두 남동생이 있어 양쪽에 두 동생을 대동하고 다니니 어디를 가나 든든한 모습에 오빠나 남동생이 없는 엄마인 나는 때론 부럽기까지 하다. 세 아이가 모두 한 살 터울인 연년생이라 친구 같지만, 덩치 큰 두 녀석이 어떤 이야기로 의견을 나눌 때는 누나의 의견을 신중히 듣고 따르는 편이다. 세 아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엄마는 늘 고맙고 마음이 뿌듯하다. 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모두 집에서 떠나 살고 있어 특별한 날에나 함께 모이게 되어 가끔은 보고 싶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다. 하지만 제 일들이 바빠서 얼굴 마주하기 힘들니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달래본다.

딸아이는 보스턴 시내에서 큰 녀석(남동생)과 함께 Roommate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달은 혼자서 지내고 있다. 큰 녀석이 Boston College의 Law School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은 프랑스에 8개월 교환학생으로 가 있다. 그래서 누나인 딸아이가 동생이 없어 쓸쓸해 하는 참이다. 누나와 동생이 함께 있

으면 둘이서 서로 말싸움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많은데 남동생이 7월 말쯤에 온다니 딸아이는 내심 무척이나 기다리는 모양이다. 부모 형제와 떨어져 살다 보니 이렇듯 형제 자매가 곁에 있어 나눌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또 있을까 싶다.

가끔 언니가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다른 가족들은 부모님을 초청하여 함께 살기도 하고 형제·자매들을 초청하여 곁에 살기도 하니 가끔은 무척이나 부러운 마음이 든다. 물론, 부모님은 연로하셨기에 초청한다는 생각은 불가했으며 동생이라도 있었다면 초청을 했을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이민 생활이 어찌 쉽지만 할까 싶어 한국에서 자리 잡고 사는 언니들을 불러올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저 여유가 되면 가끔 미국에 놀러 오면 동생이 있으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니 가끔 곁에 언니라도 있었다면 싶은 마음이 든다.

딸아리와 두 녀석을 보면 참으로 부러울 때가 많다. 셋이서 있으면 나이가 비슷비슷하니 친구 같아 좋고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서로 의논 상대가 되어주니 서로 좋은 것

이다. 그래서 곁에서 지켜보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한다. 친정 식구 없이 혼자 미국 땅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어 늘 혼자인 것 같아 마음이 외로울 때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이제는 그나마 미국에 친정 조카가 둘이 살고 있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 좋다. 무엇이든 어찌 좋은 것만 있을까. 가족이 많으면 많은 데로 좋은 것도 많지만, 복잡하고 걱정할 일이 많지 않던가.

그건 그렇고 딸아이가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걱정이 많다. 여기저기 학교에 이력서를 넣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하고 말이다. 요즘처럼 Job(직장)을 얻기 힘들 때에 자신이 좋아하고 열정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Job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성인이 된 자식을 부모라고 이렇다저렇다 말이나 간섭을 할 수가 없으며 자식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저 곁에서 자식의 인생 진로를 놓고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다. 딸아이의 대학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Job을 얻기를 엄마는 간절히 기도한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봄날은 간다 II**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말이 아득하다. ‘사랑이 이만큼 다가왔다고 느끼는 순간, 봄날은 간다.’ 영화 ‘봄날은 간다’ 포스터 문구라 했다. 짧은 보스턴의 봄은 아깝고, 사랑은 안타깝다. 봄도 사랑도 너무 짧아 애뜻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런가. 성큼 여름이 닥쳤다. 며칠 전엔 벌써 90도였다. 이젠 여름 기온이고, 여름도 청춘이다. 더 푸른 청춘이 성큼 다가왔다.

민태원 선생의 청춘예찬의 첫 몇구절이다. 중수필이라 했고 중중이라 했으니 무겁다. 하지만 청춘은 벚꽃마냥 가벼워 바람에 휘날린다. 이 수필도 한창 청춘인 고등학교 때 배웠다. 선생 말대로 청춘은 말로만 들어도 가슴 설렌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따뜻한 봄바람이다.

봄날은 간다. 흘러간 백설희표 한국가요 제목이다. 원조가수가 부른 것도 삼삼하다만, 주현미나 장사익이 부른 것도 좋다. 요새 젊은 가수들이 재해석해서 불러도 들을만 하다. 하긴 이 노래는 재해석 할 필요도, 편곡할 필요도 없다. 원곡대로 불러야지 싶은 게다. 나만의 취향이다. 지난 해엔 1절을 같이 불렀는데, 올 봄엔 2절을 나눈다. 2절 가사가 오히려 더 가슴을 저민다. 청춘은 봄바람이라 했는데, 봄날은 가는 것처럼 들린다. 봄날을 보내야 여름이 온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노새 딸랑대는 역마차 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억에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2절)

한국엔 노년층인구가 급히 증가한다고 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시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은퇴를 하고 나면, 남은 이십십년은 무얼해야 하는가. 청춘은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듯 흘러갔고, 학학대며 달려온길 아득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앞으로 가야할 기나긴 길이 만만한것도 아니다. 카톡을 통해 조크를 전해 받았다. 현역에서 은퇴한 친구가 말했다. ‘이번에 장로가 되었다’. ‘내친김에 목사가 되련다.’ 허걱. 장로가 되었다는 건 이해 하겠지만, 무슨 목사?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입맛 씹쓸한 해석에 헛웃음이 나온다. 장로는 장기간 노는 남자이고, 목사는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이란다.

요즈음 내 친구 장로?와 목사?들 소식은 젊고 싱싱하다. 나이든 청춘이 지나간 청춘만 못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려 하는 모양이다. 누구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따라 수십 일간 걷기 여행을 시작했다. 인생 후반전에

역전을 꿈꾸는지 그건 묻지 않았다. 봄날을 보내고, 또 다른 여름을 준비하는 듯하다. 누구는 산골에 집을 짓고 있다. 보내오는 사진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혼자 준비하고 설계하고 집짓기를 감독하고 있단다. 젊은 활력이 가상하다. 누구는 재취업. 아직도 팔팔하게 젊어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겠다는. 다른 누구는 베트남으로 아프리카로 봉사여행을 떠났다. 또 다른 누구는 야생화를 기른다. (내가 말했다. 야생화는 말그대로 야생에서 자라야 하는것 아닌가? 정원에서 기른다면 더 이상 야생이 아니지 않는가?). 나야 또 다른 청춘을 맞기에는 너무 이르다. 내 청춘은 아직도 진행중이며 전반전이 끝나는 휘슬이 울리지도 않았다.

어느 국회의원이 가요 봄날은 간다를 열창했다. 어머니의 날 축하노래로 말이다. 그것도 무거운 무슨 공식회의 석상이라 했다.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로 어울리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웃기는 짜장들이 별짓 다한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5)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면가왕' 루나, "지휘자 父 · 성악가 母 사이서 출생"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팀 = '복면가왕'으로 최고의 가창력을 선보인 걸그룹 에프엑스의 멤버 루나의 남다른 유전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루나는 과거 KBS2 예능프로그램 '해피버스테이'에서 '음악가 가족' 을 소개하며 "지휘자 아버지와 성악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언니 또한 성악을 전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한 방송을 통해 "사실은 제가 일란성 쌍둥이다. 자연분만을 했으면 언니였을 텐데, 지금의 언니가 몸이 약해 제왕절개를 해서 먼저 태어났다"면서 "태어날 때 몸무게가 1.5kg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루나는 지난 10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에서 1, 2대 복면가왕의 주인공 '황금라카 두통쌌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방송에서 루나는 "이제는 말할 수 있



다. 가면을 쓰고 무대에 서면 자유로울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목소리만으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많이 배웠고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기쁘다"라는 소감을 드러냈다.

특히 루나는 "좋은 무대 보여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패널들의 말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보였다.

kijez875@news1.kr

티보플레이 5월 1째주 시청률 BEST 10

- | | | |
|----|-----|------------|
| 1 | MBC | 압구정 백야 |
| 2 | MBC | 불굴의 차여사 |
| 3 | KBS | 그래도 푸르른 날에 |
| 4 | MBC | 복면가왕 |
| 5 | SBS | 달려라 장미 |
| 6 | SBS | 풍문으로 들었소 |
| 7 | KBS | 착하지 않은 여자들 |
| 8 | KBS | 당신만이 내사랑 |
| 9 | MBC | 화정 |
| 10 | SBS | 냄새를 보는 소녀 |

티보플레이 5월 1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CJ E&M | Sixteen |
| 2 | CJ E&M | 울지 않는 새 |
| 3 | KBS | 베토벤의 비밀 파일 |
| 4 | KBS | 고대도시 품페이 |

티보플레이 5월 1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국제시장 | 황정민/김윤진 |
| 2 | 빅매치 | 이정재/신하균 |

이정재 <빅매치> 액션 연기, 90% 대역 없이 직접 소화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배우 이정재가 '빅매치'에서 액션 연기를 소화한 소감을 밝혔다.

이정재는 20일 오후 2시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빅매치'(감독 최호) 언론시사회에서 "운동을 하면 할 수록 살이 빠져가고 말라가더라. 확실히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조금만 운동해도 금방 몸이 좋아진 티가 났는데 이젠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더 노력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체중을 조금 더 늘리고 싶었는데 운동을 두 번씩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더라. 동작 같은 것들을 많이 연습해서 어렵게 촬영하진 않았다"며 "현장에서 직접 다 할 수는 없었던 위험한

장면이나 어려운 장면들은 할 수는 없었지만 거의 90%는 내가 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재는 '빅매치'에서 타고난 승부사 기질과 집념을 가진 불굴의 파이터 최익호 역을 맡았다. 최익호는 천재 악당 에이스(신하균 분)에게 납치된 형을 구하기 위해 도심 전체를 무대로 한 사상 초유의 미션에 도전하게 되는 인물이다.

'빅매치'는 도심 전체를 무대로 천재 악당으로부터 형을 구하기 위한 익호의 무한 질주를 그린 오락 액션 장르의 영화다. 배우 이정재, 신하균, 이성민, 보아, 김의성, 라미란, 배성우, 손호준, 최우식 등이 출연한다.

aluem_chang@news1.kr



TBO PLAY

보스톤 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Play 스페셜 이벤트

\$9^{.99}
(첫 3개월)

대상: TBO Play 신규 가입자
내용: 첫 3개월 \$9.99 이후 \$34.99 (정상가: \$39.99)

이동 고객 우대 스페셜

\$29^{.99}

대상: 타사 케이블 고객중 이동을 원하시는 분
내용: 1년 이상 가입시 월 \$29.99 (정상가: \$39.99)

친구(신규 가입자) 소개

한달 무료시청

대상: TBO Play 가입자 중 소개자
내용: 소개 받으신 분이 첫 페이먼트를 한 이후 그 다음달에 소개자에게 한달 크레딧 적용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마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력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49,900
Sharon, MA
3 Beds, 2.5 Baths, 2460 sf.
Private Wooded Back Yard
완벽한 집,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599,900
Sharon, MA
2 Beds, 3.5 Baths, 1969 sf.
Custom Built, Water Pool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379,900
Sharon, MA
3 Beds, 2 Baths, 1352sf.
New metal roof 2012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이현주 401-935-3397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제니스리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s, 3498sf.
Maintained 2002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525,000
Canton, MA
3 beds, 2.5 baths, 1848 sf.
Charming cape in a great
Convenient Location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625,0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 sf.
편리한 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 Jung 617-780-1675



\$420,000
Boston, MA
1 Bed, 1 Bath, 474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229,000
Chelmsford, MA
3 Beds, 2.5 Baths, 1071 sf.
많이 업그레이드 된 타운홈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150,000
Amherst, MA
한국에서 오래 장사한곳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High traffic main road
399 seat, Full Liquor License
Sue Rong Tsai 617-792-8842

한국프렌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Beauty School
\$135,000
Woburn, MA
좋은 시설, 편리한 장소
Gina Choi 978-866-3248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Turn Key Business
26년동안 잘 운영된 비즈니스
Kwang O. Kim 617-792-8615

Condo Rental
\$1,525
Acton, MA
2 Beds, 1bath, 820sf.,
안전하고 좋은 학군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모든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운영됨
모든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운영됨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Chris Ferron
978-905-9014

Restaurant  \$547,9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Established in 1989 Great potential to grow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690,0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Commercial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병원건물  \$890,000 Worcester, MA 6552 sf., 38대 주차공간 Um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Coin Laundry  \$70,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Sushi Bar  \$90,000 Newton, MA Good Location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Dry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120,000 Boston, MA Beer&Wine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Legacy Place Center Sue Rong Tsai 617-792-8842
Beauty Service \$100,000 Newton, MA A turn 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398,000 Cambridge, MA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ushi.com

사시미:
상징적인 생어와 훈마구로 참치, 방어, 흰푸나, 레드스네이크, 생굴과 생우니, 한치회부침과 배운탕까지

스시와 롤:
상징적인 훈마구로 참치, 스크미시 셀룬, 라마제, 장어, 새우, 오징어 등등

**사시미 롤코스
김밥**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업스론에 위치한
최의 오빠스시에서
상징적이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1 No.20 May 15 2015

발행처 : The Boston Korea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87

5월의 신부를 위한 선물

민아 캠프로스 (Min-ah Campos)

508-617-7122
minisha50@hotmail.com

연타비 100% (유니버설 플레이)로 새겨 드립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세요!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언하는 한국 방송 언하는 시기에
내마음대로 무하대로 시청하다

티보 플레이어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공감의 티버를 시청하세요

시니어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 29.99
4월 30일까지 2년 역행시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신부가 유난히 아름답게 돋보이는 5월이다. 가장 아름다운 날,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만들어주는 출장 웨딩 메이크업 서비스, '민아 캠프로스 (Min-ah Campos)' 를 소개한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스타일리스트를 겸하는 김민아 씨는 "요즘 신부님들이 주로 선호하는 브라이드 룩 (Bride look)은 너무 과하거나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움" 이라고 전했다.

피부의 잡티나 다크서클은 완벽히 가려주면서 동시에 촉촉하고 화사해보이는 파스텔 톤의 피부 표현. 인상이 한층 부드러워 보이고 어려보일 수 있는 브라운 컬러의 일자 눈썹과 핑크색 입술이 내추럴 룩의 완성이다.

또한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 한국과 달리 야외 촬영이 많기 때문에 메이크업 시 얼굴의 윤곽 표현에 특히 신경쓴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김민아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부님들의 가장 소중한 날, 가장 예쁘게 보이고 싶은 날을 연출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며 "바디 메이크업까지 마무리해드린 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지는 신부님들의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고 밝혔다.

민아 캠프로스의 출장 서비스는 본식 전 헤어, 메이크업 서비스를 미리 받아보면서 당일 어떤 컬러톤으로, 어떤 이미지의 룩을 완성할지 상의하는 '트라이얼' 부터 시작된다.

김민아 씨는 "트라이얼이 웨딩 전 필수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하는 룩을 정확히 연출함으로써 만족도 높은 예식에 된다" 며 추천했다.

메이크업에 필요한 제품이나 도구는 민아 캠프로스에서 준비되므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스킨케어 제품만 바른 민낯으로 자연광이 좋은 곳에 테이블과 의자를 준비하면 된다.

한편, 민아 캠프로스는 결혼을 앞둔 신부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프롬이나 졸업식, 돌잔치 등의 행사를 위한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행사에 어울리는 최고의 메이크업을 선물해준다고.

아울러 메이크업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민아 캠프로스 튜터링이 진행 중이다.

김민아 씨는 "메이크업은 놀라울만큼 스스로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 라며 "아름다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튜터링을 실시한다" 고 전했다.

튜터링을 통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 팁 (머리 볼륨 살리는 법, 컬 마는 법 등), 코디하는 팁 등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메이크업 서비스 및 튜터링에 관심있는 사람은 민아 캠프로스 (minisha50@hotmail.com 또는 508-617-7122)로 연락하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rk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에 배 1PM, 담임목사 유영일

bgabc.org
홈페이지에서 설교, 찬양 영상 영이 설교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9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8.6434
global ark baptist church in malden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정보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청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교(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603-898-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978-902-8305
뉴잉글랜드공공협회	978-398-3060
뉴잉글랜드신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신문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턴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탈리아도민협회	978-514-3399
한인학교동맹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수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학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학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턴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턴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250
리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나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978-7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메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턴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17-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치 앤 엘리교회	978-274-2369
엘프리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프리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타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9-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령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뱅통/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보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안구정중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론퍼서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Bliss Image	617-819-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	--------------

내과

송만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	--------------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턴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종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경주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스치과	617-471-2184
퍼스트우치스덴탈그룹	781-391-5606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학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알병원(병리)	203-330-8080
------------	--------------

국세보석상	617-523-2553
미태석상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국세보석상	617-523-2553
미태석상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미분향 보험	781-325-3406
조종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우치스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부동산	
가나안부동산(손득한)	617-290-0623
김종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택은 Realtor	617-678-9330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백영주부동산(뉴스타)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원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혜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74-2087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수부동산	617-236-8600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수)부동산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시진관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스튜디오	774-253-18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네틱(Natick)에 있는 세탁소에서 프레스로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508-655-5004

린(Lynn)에 있는 세탁소에서 셔츠프레스 구함 (남녀노소 불문) T. 781-596-2939

렉싱턴소재 한,일식 식당 웨이추레스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구함. T. 781-860-0171

주방보조 풀타임 일하실 분 구함 치코피 지역 한식당 T. 413-262-3218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일식당 매매 15K - 18K

한식 겸하면 최고 조건, 독점지역 저렴한렌트, 알차고 꾸준한 매상 두차례 영주권 내준 식당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TEL 603-557-3123

For Sale Dry Cleaner Brookline CollidgeCorner

Well established customer and road basd (since 1959) New "Eco-Friendly" dry cleaning machine. Asking \$299,000 Contact Carl T.617-577-9872

보스톤 북쪽 지역 일식당 매매 16년 된 식당, 연매상 \$700,000 T. 978-494-2712

N[매매]
치킨왕, Fish(생선) 튀김가게 렌트비 월\$1,600, 면적 1,400 SF 좋은 로케이션, 주변 식당들이 모두 잘 됨. 지역은 노스케롤라이나 웨잇빌 장비는 거의 새것임 매매가격: \$70,000 T. 910-868-4499 (11AM - 7PM 까지)

N[매매]
올랜드 디즈니 인근 주유소 판매 디즈니 방향8차선 교차로 로컬몰 진입 로에 위치, 일일통행량 8만대 이상 100% Absentee Owner로 운영중 순이익 \$10,000/월, 판매가 \$250,000 lifeisgoodfl@hotmail.com T. 863-800-0109

N[구인]
용모 단정하고 성실하신 여성분 기본급+TIP(고수입보장) 단골손님 많고 오래된 Bar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 오래 일하실분 T. 470-428-1010

N[매매]
매사추세츠 주 스프링필드 10분거리 풀 플랜트, 30년 운영 세탁소 주인 은퇴, 매매가 \$85,000 건물 매매도 가함. 렌트 시 월 \$1,500 T. 413-271-4357

N[매매]
테네시에 위치한 13년된 세탁소 월마트 쇼핑몰에 위치함 매매가 \$ 320,000, 월매상 \$ 30,000 기계가 대부분 교체되어 새장비임 렌트비 월 \$ 2,500, 면적 1,600sf T. 931-241-0415

N[매매]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스파 매매합니다. 성공중인 가게로 건강상의 문제로 매매코저 합니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T. 321-458-2858

N[매매]
당도가 높은 콩, 간수 썬 천일염, 인디안 스프링 약수를 사용한 전통식 된장, 간장을 판매합니다. 지방 한인 마켓이나 단체 주문시 도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T. 678-764-0331, 678-656-9977

N[매매]
메이컨조지아 근처 동양마켓겸 한식당매매 연매상 1밀리언 이상 건강상의 문제로 성업중인 한국마켓 및 안에 있는 한식당매매 현재 일하시는 분 7명 확실한 매상 수입, 전화문의 및 방문 환영 T. 615-714-8016

N[매매]
FL Stuart에서 7년째 영업중인 일식집, 2,000 Sf, 75석 월렌트 \$2,700, 매매가 \$50,000 T. 772-285-8629

N[매매]
샬롯, NC 일식당 매매 히바치 16 그릴 스시바 7,000 SF 단독건물 좋은 조건에 팝니다 T. 406-259-6211

N[구인]
높은 수입보장(월 6천 - 1만) 손님 수준 높고 Tip도 많이 벌수 있는 기회 S 룸,카페 마담, 아가씨 구함 산호세 지역, 숙식제공 주급+Tip 수준높은 실리콘 밸리 지역 T. 651-329-3307

4989 부동산매매는 —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母)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母)친이라
Whoever does God's will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 마가복음 3:35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 교회들은 5월 10일 주일을 ‘어머니날’ 로 지켰다. 보스톤 한인교회(이영길 목사)는 이날 주일 예배를 끝내고 ‘어머니 주일 찬양제’ 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감사제를 올렸다. 온 교인이 함께.

보스톤 한인교회는 1976년 5월 9일부터 어머니 주일 찬양제를 시작, 어머니가 살아계신 교인들은 빨간 장미꽃, 돌아가신 교우들은 흰 장미꽃을 가슴에 꽃고 빠짐없이 어머니 찬양제에 참석했다.

빨간 장미꽃은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함께 또는 멀리 계셔도 함께 숨쉬는 땅 위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아들, 딸의 희망이다.

13일 한국 국회정보위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집권 후 총 70여명을 총살했다” 며 “장성택, 이영호 같은 최고위급 간부는 물론 중앙당 과장이나 지방당 비서 등 중간 간부들까지 처형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이 2012년 3명, 2013년 30여명, 2014년 31명, 2015년 현재 8명(일반 주민 포함 시 15명)을 처형한 것으로 추계됐다. 아버지 김정일이 집권 초기 4년간 10여명 처형한 것과 비교하면 7배나 많은 수. 김정은 수가 있었다면?

김정은의 처형 경주는 2012년 3월 김정일 사망 추도기간에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김철인 민무력부부장을 처형하면서 테이프를 끊었다. 이후 아버지 시절 군부 1인자였던 리영호 참모 총장과 고모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차례로 처형했다.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영구 처를 호위하던 윤구 7인방 중 김정은 집권 3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건재한 인물은 겨우 2명에 불과한 것.

우동축 전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은 자

살했고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과 김정각 전 총정치국 제1부국장은 제2선으로 물러났고 최태복, 김기남 당비서만은 현역 활동 중.

김정은은 지난 3월, 은하수관현악단 관계자 등 예술인도 풍기문란 등 혐의로 처형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나 간첩 같은 중죄인 뿐만 아니라 김정은 지시와 정책 추진에 대한 이견제시나 불만도로, 심지어 비리, 여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처형이 남발되고 있다” 다.

경북 구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두 사람이 자신들을 훈계하는 여교사를 발로 차는 폭행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경북교육청에 의하면 지난 12일 이 고등학교 학생 2명이 “수업시간이 다 됐는데 왜 소란이냐” 고 다그치는 여교사의 옆구리를 발길로 2-3차례 차는 등 폭행을 했단다.

폭행 당한 여교사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 이란다. 어머니 같은 여선생을 발길질하는 아들들의 수는?

이 여교사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어머니 같이 용서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진상을 파악 중이다.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을 하던 최(崔)모 씨가 총을 난사해 예비군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그리고 최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박 3일 동원훈련을 하러 입소한 최 씨는 실탄 10발이 든 탄창을 받은 직후 다른 예비군을 향해 K2 소총을 난사했다는 것. 예비군 사격훈련 중 첫 사례다. 현역병도 아닌 예비군이 벌인 난동이어서 더 충격적이다.

최 씨는 현역 복무 때 “B급 관심병사” 였다. 군복무 때 이미 “우울증과 인터넷 중독치료” 를 받았었다.

지금 군(軍) 내엔 자살 시도 경력이 있거나

성격결함으로 가혹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A,B급 관심병사가 28,000명.

예비군 사격장 중에는 총구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없게 고정시키는 장비도 설치한 곳도 있다.

이 장비만 있었드래도 예비군 훈련을 와서 목숨을 잃고 중상을 입는 어처구니 없는 비극은 막았을텐데...

한 사람의 불순동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된 것 같이 모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 몸에 지니고 있어 모든 아들, 딸들의 아픔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어머니의 사랑, 곧 “母情(모정)” 을 관할할 수 있는 특권을 보유하기 때문.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行)치 않으면 모의 자격이 없다” 고 선언한 까닭이다.

母모: 父之配부지배 - 어머니 모. ‘어머니’ 보다는 ‘아버지의 배필’ 이 순서가 먼저다. 아버지 없이는 어머니가 될 수 없으니까. 따라서 父母는 “한 몸” 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So the Lord God caused the man to fall into a deep sleep; and while he was sleeping, He took the one of the man's ribs and closed up the place with flesh.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 He had taken out of the man,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The man said,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she shall be called woman for she was taken

out of man.” - 창세기 2:21-23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몸’ 인 것이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의 시작이니까.

해서 女(여)자가 하나님(一)과 남자(一) 그리고 여자(一)가 합쳐진 세 획이다.

그러므로 女자가 어머니(母)가 되면 하나님(一)이 아래, 위를 갈라놓게 된다.

그와 一이 합쳐진 口(국 또는 구)를 아래, 위로 갈라놓는 하나님(一) 뜻이 중요한 열쇠다. 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God's Will) 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위, 아래를 구분하는 “母자의 심판자” 가 된다. 母자의 위 부분 - 하나님(一) 한계 - 은 “하나님의 뜻” 대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를 뜻하고 母의 아랫부분 즉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마가복음 3:22-30 참조)” 은 예수님 기준에 미달한다는 뜻.

이 사람들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라 규정한다.

1. 종교적 기독교인자 - 제사장, 사두개파들(마태복음 22:23-33)
2. 정치적 기독교인자 - 헤롯당, 로마정부(마태복음 22:16)
3. 율법적 편견 - 바리새인(마태복음 15:1)
4. 경제적 기독교인자 - 부자들, 성전 상인들(마태복음 8:28-34)
5. 열등감 - 고향 사람들(마가복음 6:1-6)
6. 균중심리 - 수난 주간의 백성들(마태복음 27:22-26)
7. 냉담한 무관심자 - 당시 대도시인들(마태복음 11:20-24)
8. 인본적 지식인들 - 서기관, 율법사(누가복음 5:21-26) 등등...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식구가 돼 있는 줄 착각하고 “하나님 뜻” 에 미달하는 그리스도 신자(信者)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교회를 나가면서 母의 바닥에 떨어져서 적(敵) 그리스도가 돼 있거나 없는지 꼭 확인할 때란다. ‘어머니(母) 달’ 이어서...



Summer 2015 Program
Sign Up Now!

Essay Writing Workshops: Middle and High School	
Make essay writing easier for you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Enroll your student in a ReadWrite essay workshop where students study the elements of a quality essay and prepare, write and revise up to two essays in class.	Monday to Friday 9:00 to 11:00 AM
\$150 per week/ \$125 Early Bird Discount. Register by May 15.	Weekly sessions run from July 6 to August 14
Summer Days Program: Grades 3 to 8	
Our Summer Days program offers kids summer fun while they continue to build their reading, critical thinking and writing skills. In between outdoor activities and creative projects, kids read, discuss readings and write related essays.	Monday to Friday 9:00 to 3:00 PM <i>Before care and extended day options available.</i>
\$270 per week/ \$250 Early Bird Discount. Register by May 15	Weekly sessions run from July 6 to August 14
Weekly Year-Round Classes: First Grade through High School	
Students practice essay writing, and critical thinking and reading skills in a small class. Students improve writing skills by drafting, revising and polishing persuasive essays, opinion pieces, narratives and more. Our curriculum and class size are structured for open enrollment, and ensure that each student's needs are met. Classes are held year-round.	Classes: (Grades 1-12) • Reading/Writing Workshop (1-4) • Literary Analysis (5 to 8) • Expository Analysis (5 to 10) • Intensive Essay Writing (High school) • Tutoring: SAT, ACT, ISEE, SSAT
Class schedules can be found at: http://www.bostonreadwrite.com/schedule/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5월 4일 ~ 5월 10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당신만이 내 사랑)	27.7%
2	KBS2	주말연속극(파랑새의집)	22.8%
3	KBS1	KBS9시뉴스	17.4%
4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16.4%
5	MBC	일일특별기획(압구정백아)	14.8%
6	MBC	주말특별기획(여왕의꽃)	14.1%
7	MBC	MBC아침드라마(폭풍의여자)	13.8%
8	KBS2	일일드라마(오늘부터사랑해)	13.2%
9	KBS2	개그콘서트	12.6%
10	KBS2	해피선데이	12.4%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일일특별기획(압구정백아)
2	MBC	일일연속극(불굴의 차여사)
3	KBS2	아침드라마(그래도 푸르른 날에)
4	MBC	복면가왕
5	SBS	일일드라마(달려라 장미)
6	SBS	월화드라마(풍문으로 들었소)
7	KBS2	수목드라마(착하지않은여자들)
8	KBS1	일일연속극(당신만이 내 사랑)
9	MBC	월화드라마(화정)
10	SBS	드라마스페셜(냄새를 보는 소녀)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LOSER	BIGBANG
02	BAE BAE	BIGBANG
03	Me You (Feat. 백예린 Of 15&)	San E
04	어머님이 누구니 (Feat. 제시)	박진영
05	아예 (Ah Yeah)	EXID
06	다른 남자 말고 너	미쓰에이
07	Who Are You (Feat. 개코)	보아
08	Puss (Prod.by 라이머)	지민, 아이언
09	연예할래	박보람
10	한번 더 말해줘 (Feat. 장한나)	지누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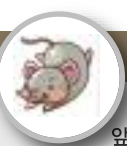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8			6	1		5		
		9	2					
		1	3				8	
3			4			8	2	
	4						7	
	2	6			5			4
	9				6	7		
					2	1		
	5		9		4			2

5월 17일 - 5월 23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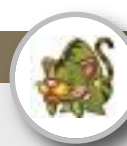
쥐띠 | 사랑이 비치기 시작

● 운수: 긍정의 힘을 믿어주세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앞날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현실에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 금전: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투자나 매매 등에 있어서 사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금전적으로도 차츰 회복되어갈 것입니다. ● 애정: 주위에서 그 어떤 방해가 들어오더라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84, 72, 60, 48, 36년생은 20, 23일 길일. 18, 2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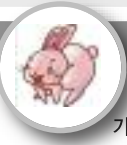
소띠 | 풍요로우니 심적으로도 여유가

● 운수: 봄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고 추수하여 걷어 들이는 가을의 시기가 왔습니다. 풍요로우니 심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 금전: 금전사정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유리한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애정: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가정에서는 웃음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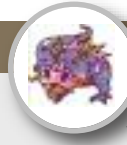
범띠 | 눈 녹기를 기다리는

● 운수: 의욕이 없어지고 쉽게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 금전: 금전에 관련된 일로 결정하기 곤란한 상태에서는 수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솔한 판단을 하기 쉬우니 나서지도 말고 조용히 지나가야 합니다. ● 애정: 수북이 쌓인 눈 속에서 초목의 싹이 눈 녹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8, 22일 길일. 17, 20일 주의.



토끼띠 | 밝은 희망이 보이고

● 운수: 사업상으로 커다란 성과를 얻게 도움을 주는 계기가 있겠습니다. 차츰 희망적으로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 금전: 급하게 필요한 돈이 생깁니다. 금전 융통이 생략처럼 되지 않아서 다소 불편함을 겪게 되겠습니다. ● 애정: 좋은 만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만남을 어떻게 잘 이어가느냐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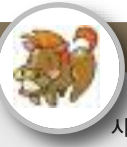
용띠 | 이득을 얻는 지름길

● 운수: 새로운 일이 연결됩니다. 일과 관련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 금전: 매매나 이사나 이전 등 변화를 주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과감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이득을 얻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 애정: 상대의 애정이 어린 충고를 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만을 주장한다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0, 21일 길일. 22, 23일 주의.



뱀띠 |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피를 못 잡고

● 운수: 하려고 하는 마음은 강하나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겠습니다. 힘만 들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 금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손해를 보니 변동하지 말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 애정: 의심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눈에 다 거슬리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9, 21일 길일. 20, 2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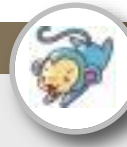
말띠 | 시대감각에 맞는

● 운수: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감각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 금전: 경제 운이 왕성해져서 큰 이득이 있겠습니다. 단, 돈을 빌려주거나 새로운 것을 구입을 하기 위한 지출은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 애정: 외로웠던 사람에게 좋은 흔치가 나옵니다. 주말에는 멋진 데이트나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19, 22일 길일. 20, 21일 주의.



양띠 | 큰 발전을 기대할

● 운수: 주위와의 융화나 협조를 구하기에 순조로운 것입니다.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니 하고자 하는 일을 시도해도 되겠습니다. ● 금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갑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자신의 뜻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 애정: 부부간의 애정이 뜨겁게 되 살아납니다. 자녀로 인해서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8, 23일 길일. 20, 2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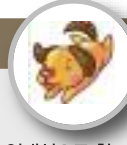
원숭이띠 | 한 마리 토끼만을

● 운수: 반복되는 생활의 틀 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까. ● 금전: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수에 맞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복잡한 이성 관계는 즉시 정리하고 한 마리 토끼만 쫓아가도록 하세요.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0, 21일 길일. 17, 2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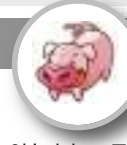
닭띠 | 솔직한 인상을

● 운수: 그동안 추진하던 일의 방향을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 자세로 나가면 순조로울 것입니다. ● 금전: 상대에게 솔직한 인상을 심어주도록 합니다. 진실한 모습이 거래관계에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애정: 이성에게 매력적인 끌림을 주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신을 가지고 만나보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17, 22일 길일. 18, 20일 주의.



개띠 | 밝아오는 새벽이

● 운수: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아오는 새벽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이 되도록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인내심으로 참고 견디면서 현 상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금전 운은 반드시 호전될 것입니다. ● 애정: 미혼남녀는 결혼의 문이 열립니다. 잘난 척하면 손해를 보지만 겸손하게 행동을 하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8, 22일 길일. 19, 20일 주의.



돼지띠 | 조금씩 호전되면서

● 운수: 어느 정도 안정을 되고 이런저런 구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건강문제로 신경 쓸 일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 금전: 금전적으로 불안정했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면서 생활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 애정: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지니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고부간의 문제가 급기야는 부부사이를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9, 23일 길일. 17, 20일 주의.

배용준 · 박수진 "올해 가을 결혼"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배용준과 박수진 측이 결혼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의 소속사인 키이스트 측은 14일 공식 홈페이지에 "가족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식이 한 가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린다. 다름이 아니라 배용준과 박수진이 올해 가을 결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으며 올해 2월부터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며 "배용준은 밝은 성격과 깊은 배려심을 가진 박수진에게 호감을 가지게 돼 연인으로 사랑을 키워나가게 됐다. 그런 배용준에게 박수진 또한 따뜻함과 세심한 배려에 신뢰와 사랑을 갖게 돼 연인 관계로 만남을 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두 사람의 교제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으나 여러 방면에서 공통

적인 관심사가 많아 대화가 잘 통했다. 또한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확신을 가지게 됐고 최근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며 "현재 양가 부모님께 허락은 모두 받은 상태이며 구체적으로 결혼식의 일정 및 장소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우선 결혼식은 올해 가을 즈음으로 예정하고 진행 중이다"면서 "결혼식과 관련한 구체

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결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릴 예정이다. 가족 여러분! 두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과 새로운 출발에 대해 축복해주시길 바라며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행복한 일 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한편 박수진은 지난해 3월 배용준이 사장으로 있는 키이스트와 계약했다.

aluem_chang@news1.kr



'삼시세끼'와 경쟁, 따라잡도록 노력할 것

'프로듀사' 차태현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배우 차태현이 나영석 PD의 '삼시세끼'와 동 시간대 시청률 경쟁을 하게 된 소감에 대해 털어놨다.

차태현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더라움에서 열린 KBS2 새 금요예능드라마 '프로듀사'(극본 박지은/연출 표민수 서수민) 제작발표회에서 '삼시세끼'와의 시청률 경쟁에 대해 "지금은 서로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대 프로그램이라도 잘 되면 좋겠다 싶다. 우리가 후발 주자여서 많이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

다.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잘 나가는 프로그램이니까 저희가 많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차태현은 '프로듀사'에서 입사 8년 차이자 폐지 위기의 예능 프로그램 '1박2일' PD 라준모 역을 맡았다.

한편 '프로듀사'는 야근은 일상, 밤샘은 옵션, 눈치와 체력으로 무장한 KBS 예능국 고스펙 허당들의 순도 100% 리얼 예능드라마로 KBS 예능국이 그동안의 제작 노하우를 집약해 야심 차게 선보이는 첫 예능드라마다. 박지은 작가와 서수민 PD가 기획했으며 표민수 PD가 연출을 맡는다. 배우 차태현, 공효진, 김수현, 아이유 등 국내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한다. 오는 15일 밤 9시15분 첫 방송.

aluem_chang@news1.kr

소신 지킨 '삼시세끼', '프로듀사' 뛰어넘을까?

(서울=뉴스1) 명희숙 기자 = 나영석 PD는 CJ E&M 이적 이후 '꽃할배' 시리즈와 '삼시세끼' 등 연이어 프로그램을 히트시키며 이른바 나영석 표 예능 신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 그가 '삼시세끼 정선편'의 첫 방송을 앞두고 걱정과 긴장감을 드러냈다. 지상파 예능드라마 KBS2 '프로듀사'와 동시간대 라인업이 주는 부담감 때문이었다.

이날 자리에 모인 기자들의 관심 역시 강적 '프로듀사'와 동시간대 방송되는 것에 대한 제작진에 속내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김수현, 차태현, 공효

진, 아이유 등 화려한 출연진과 카메오 등이 한 데 모인 '프로듀사'에 대해 나영석 PD는 "어벤져스'가 다 모인 것"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계절은 지나 다시 돌아온 '삼시세끼-정선편'은 여전히 소소한 웃음으로 시청자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전망이다. 그 웃음이 다소 심심할수도 있지만 MSG가 가득한 현실 속에서 유기농 웃음이 주는 매력을 시청자들은 놓칠 수 없을 것이다.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삼시세끼-정선편'이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을 가져도 충분한 이유다. reddgreen35@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공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i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보스톤 코리아가 만난 사람들

매출 1위 부동산 에이전트에서 부동산 사업가로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제이슨 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제이슨 전이 달라졌다. 그의 외모나 그의 직업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단지 그의 소속사와 직함이 달라진 것이다. 과거에는 뉴스타 소속의 스타 에이전트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매형 나원태 씨와 함께 창업한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을 직접 운영하는 에이전트이자 사업체 대표다.

지난 4월 보스톤코리아를 찾은 제이슨을 만났다. “더 많은 고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독립된 법인을 만들었다.

뉴스타에서 2년 연속 매출왕을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에이전트로서 인정받았다. 제이슨 전은 보통 탑 에이전트가 되면 기피하는 렌트까지 서슴없이 담당할 정도로 고객을 기피하지 않는 스타일로 유명하다.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대표로서 사업의 다양성과 고객의 다양성을 통해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와의 일문 일답이다.

▶새롭게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을 시작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는가?

책임과 의무는 똑같다. 추가적으로 사업체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손님들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는 면들은 지금까지 했던 추구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사업은 많이 다각화 할 것 같다.

▶사업을 어떤 쪽으로 다각화 하게 되는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커머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도 함께 진행한다. 한인들의 경우 매니지먼트가 잘 안되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가 LA에서 물을 관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들이 어떻게 수익을 더 낼 수 있는지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일해 나갈 예정이다.

저희가 주거용 주택도 열심히 계속해서 담당하겠지만 그것 외 투자목적으로 상업용 건물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중국사람들처럼 여러 사람이 모여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려 한다. 올스톤 하버드 에비뉴의 경우 중국 사람들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대형 건물

이 나올 경우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투자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렌트를 제공해 서로가 윈윈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

▶소비자들이 언제 프리미어 리얼티를 찾을 수 있는가?

꼭 집 매매를 해야만 저희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연락을 주시는 것이 좋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를 드릴 수 있다. 절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하지 않는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정보에 만족하는 경우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용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희는 고객

업체들이 가격을 저렴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작하여야 한다. 어떤 분은 식당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단지 그것만 머리에 담고 있으며 좌석은 몇석인지, 공간은 얼마 정도 크기인지 투자금은 얼마만큼이며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좋은 장소에 매물이 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경우는 권하지 않는다.

▶그러는 경우 고객들이 싫어하지 않는가?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러나 대부분이 좋게 받아들이신다. 저도 사업을 해보고 해서 정확하게 말씀 드리려고 노력하다. 비싼 돈을

있다는 점이다. 또한 회사에서 장소까지도 물색해 주는 경우가 있는 등 진행하는데 아주 편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마진이 약하고, 계약서가 복잡하고, 크레딧도 좋아야 하고 자본도 많아야 한다.

개인 스톡비즈니스의 경우 이익은 극대화 할 수 있지만 살아남기가 힘들다. 아이템이 확실하고 가격대비 서비스가 우월한 차별화를 이루어야 한다. 위치선정 모든 것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 그럴 때 필드 경험이 많은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다.

▶올스톤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그렇다. 그러나 자리가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다. 아무리 목이 좋더라도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면 큰 의미가 없다. 가격 대비 렌트비의 적절 수준은 하루에서 많이 해도 3일 즉 10% 이내여야 한다. 일주일 장사해서 렌트비를 감당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30만불 투자해서 한달에 두 부부가 일해서 6-7천불을 번다고 하면 그냥 어디가서 일하고 월급받는 것이 훨씬 낫다. 사람도 모두 쓰고 그래도 7천불 남는다 하면 그것은 할만한 비즈니스다. 하지만 그런 비즈니스가 어디 쉽게 찾을 수 있겠는가.

▶좋은 부동산 투자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적은 현금 가지고 집을 좋은 것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자율이 싸니까 40-45불 정도의 콘도를 20%다운 8만불로 하고 변호사비 기타 비용 등으로 2만불, 약 10만불을 투자하면 살 수 있다. 케임브리지 정도의 경우 렌트비가 월 2천 5백불 정도이니 그것으로 모기지 세금을 지불할 수 있다. 당장 현금은 손에 쥘 수 있지만 5-10년 후에는 충분한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이런 상담을 하곤 하시는데 일례로 한 분의 경우 2년전 이런 투자로 지금은 상당한 수익을 올리셨다. 저희는 렌트부더, 관리, 입주자 찾는 일 등 원스탑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다.

editor@bostonkorea.com



제이슨 전은 나원태 씨와 함께 창업한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을 직접 운영하는 에이전트이자 사업체 대표

“꼭 집 매매를 해야만 저희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연락을 주시는 것이 좋다”

의 이익을 얼마나 극대화 할 수 있는지, 거래가 순조롭게 잘 진행 되는지에 집중할 것이다. 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편안하게 전화해서 상담 문의하실 수 있다.

▶스몰 비즈니스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핫 비즈니스 아이템이 있는가

요즘 스몰 비즈니스는 안하시는 것이 좋다. (웃음) 자기 아이템이 확실하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사업계획을 갖고 시작하시는 경우 저희들이 상담하고 같이 일해 드린다. 비즈니스는 단 10%만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시작하는 분들이 장미빛 꿈만으로 진행하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최근에 마켓에 나와 있는 사

들여 공부하느니 좀 미리 공부해서 돈을 아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많은 한국 고객들의 단점이 준비성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다. 아무런 정보 없이 집을 사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나서 좀더 연구를 하시면 좀더 좋은 부동산을 찾으실 수 있다. 또한 매물로 부동산을 내어 놓는 분들도 미리 상담하셔서 좀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뚜레주르, 파리 바게트, 카페 베네 등 최근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점차 보스톤에도 진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어떤가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무엇보다 브랜드 파워가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레지덴셜 리스팅

- 1. 브루클라인 멀티 패밀리:** Rt 9 Brookline. Chestnut Hill Mall 인근에 위치. 총4,271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1.3 Mil
- 2. Colonial Single Family:** Newton Chestnut Hill에 위치. 1994년에 완공.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총면적 5,000sqft 이상, finished basement면적 포함. Asking \$1.95 Mil
- 3. Belmont 멀티 패밀리 Duplex:** Belmont High School에서 근접한 거리, 편리한 교통. 3,000sqft. 총6Bed, 2Full and 2half baths. Asking \$750,000
- 4. Watertown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편리한 교통. 2Beds 2Full baths. 1914 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450,000.
- 5. Lexington Single Family:** 1,500sqft. 4Beds 1Full Bath.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sking \$595,000

비즈니스 리스팅

- 1. Brookline 한식/일식:** 총면적 3,300sqft. 많은 유동인구.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350,000
- 2. Cambridge 한식/일식:** 총 면적 1,200sqft.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200,000
- 3. Peabody 중식:** 단독건물. 50+ Parking. Asking \$250,000. Full Liquor.
- 4. Nashua 인근 일식/한식:** NH 단독건물 주차공간 포함. Asking \$175,000. Full Liquor.
- 5. 드롭오프 스토어:** 1,200sqft. 넓은 주차공간, Lots of vehicular traffic. Asking \$35,000
- 6. 드롭오프 스토어:** 800sqft. Asking \$30,000
- 7. 세탁소+드롭오프 스토어:** 최상의 위치. Asking \$1.85 Million. 세탁소 건물 포함.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1



한국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학생들의 특별 시상식이 지난 14일 총영사관에서 열렸다

[총영사상]

남북통일 :
결코 있어야 하는 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0학년

이재현

얼마 전, 우리 한국학교에서 한 노래를 암송해야 했습니다. 어느 노래라고요? 강남스타일? 소녀시대의 Gee? 아닙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한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습니다. 노래를 암송하면서 가사의 의미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의미가 꽤 단순했습니다. "모든 한국인의 소원은 남북통일이다." 하지만 모든 한국인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와 아빠, 대학교 막 나온 청년들, 저와 제 4학년 동생과 같은 학생, 1살도 안 된 아기.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한국사람"입니다. 남북의 통일은 가슴이 벅찰 일이지만 결코 있어야 할 일입니다.

몇 년전, 텔레비전에서 남한 북한의 갈라짐으로 인해 찢어진 가족들의 제회를 보았습니다. 처음에 서로 볼 때부터 군인들이 강제로 다시 찢어질 때까지, 제회하는 가족들은 "철수야!" "엄마!"와 같이 울부짖고, 울고, 포옹하는 것을 볼 때 보는 사람의 가슴도 울립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 매우 안타깝고 슬픕니다. 군인들에게 끌려가면서 "5분만 더! 5분만 더 우리 형님 얼굴보자고!" 울부짖는 제회 가족들을 들으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10년 후, 지금은 죽어가며 계속 엄마, 아빠, 동생, 형, 아들, 딸의 생각을 하면서 우울하게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들을 위해서 통일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북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인터넷에 평양의 야경과 건물들은 세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어린 청년들과 학생들

은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로써 북한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남북통일이 없으면 평양의 아름다운 야경, 세계에 가장 큰 구장인 럽라도 구장도 가볼 수 없습니다. 북한은 생활만 어렵지, 경치와 건설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 북한의 아름다움을 실제로 보고 싶은 사람들 위해서도 통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사람들 위해 통일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북한 경제가 나빠서 삶이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통일로 인해 북한과 남한의 경제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여러 경제가들이 말합니다. 심지어, 골드맨 삭스조사가 남북통일이 있다면 2050년에 한국이 가장 좋은 경제 순위에서 3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남북통일은 가슴 벅찰일이지만 더불어 경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 위해 남북통일이 있어야 합니다.

결코, 남북통일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통일이 될까? 좋을까? 이런 질문을 물으시면 안 됩니다. 죽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북한에 있는 형, 동생, 부모, 친척들을 다시 한번, 통일 한국 밑에서 볼 수 있기 위해 남북통일은 꼭 되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통일은 모든 한국인과 북한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들, 아빠들, 어린 청년들, 학생들,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아기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정부들끼리 자존심을 뒷전하고 열심히 일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박준영

[Pre-Kinder 대상]

바다

파래요
날벼요
조아요
모래가있어요
시연해요
모래성 할 수 있어요
놀 수 있어요
해가 있어요
더워요

조개차차요
머글수있어요
엄마랑 놀수 있어요
꽃이보여요
물이있어요
하늘리 파래요
쪼금 바람이부러요
나무가 엷쳐요

[Kindergarten 대상]

내 친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기예린

저는 저에 친구가 좋아요.
각금은 저에 차를 타고 재미있는 에 가지요. 학교 다하면 친구들과 집안에서 놀기도하고요 친구를 집 앞에서 놀기도해요.

일이 생기면 놀아요.
그러때면 속상해요. 일에서 돌아오면 저녁 이다되어가요. 친구를을 무엇하고 있을까? 일에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에 잠겨요.

한 친구 는한국으로 이사를 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에 아빠는 아직 친구 집에있어요. 저는 그 친구가 너무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그친구에게 카드를 스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엷어요 그친구가 미국을로오면 정말 기쁘데.

옛날에는 재미있게같이 놀았는데 너무너무 재미게 놀았는데 저는 친구를이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1학년 대상]

우리 학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준호

우리 가족은 토요일 아침에 한국학교 가는 준비로 무지 바빠요. 우리는 한국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주시는 학습지를 합니다. 선생님이 주시는 받아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옛절때는 친구들이 떠들고 말을 잘안들어서 선생님이 힘들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열심히 끝까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제일 신나는날은 시장놀이를 하는 날이에요. 선생님이주시는 숙제로 독후감과

일기를 써서 발표를하면 스티커를 주셔요. 그리고 받아쓰기를 다 맞으면 스티커를 또 받아요. 그리고 씨를 외우면 스티커를 또받아요. 나는 독후감과 일기발표와 씨를외우고 받아쓰기도 다맞아서 많은좋은 상품을 받아요. 수업시간이다끝나면 강당으로가서 사물놀이를 배워요. 내누나는깽기리를 해요. 그리고 나는 북을 쳐요. 나는한글학교 다니는게 정말 즐거워요.

[2학년 대상]

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김진아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하면 꽃도 피고 나비가 날아 다녀요. 봄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따뜻해요.

봄은 따뜻해서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놀을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수 있어요. 봄이 되면 하늘이 맑고, 구름이 하얗고, 가끔씩 봄 비가 보슬보슬 내려요. 맨날 날씨가 봄처럼 따뜻하고 비가 가끔씩 내리면 사람들의 기분도 내 기분 처럼 정말

좋을것 같아요. 봄은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계절 입니다. 나는 봄이 좋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봄을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내 느낌은 나처럼 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봄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을까? 봄이 없었으면 봄 같은 계절이 있는지 몰르니까 다른 계절을 좋아 했겠지. 봄이 없었으면 나는 여름을 좋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름도 조금 따뜻할 수도 있고 더울수도 있어요. 그런데 봄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안내

“종교적 체험은 스스로에게서 스스로를 아는 것이요 자기 독자적으로 절대적인 경지를 얻는 것입니다. 밖으로 헤매는 산란심이 꺼진 다음에야 내부의 빛이 밝혀지며 의지하는 대상을 초월한 후에야 자기의 잠재능력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 문수사 회주 도범 스님, “구도자의 발자취” 중에서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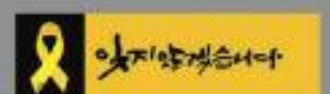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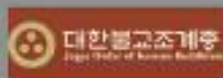
봉축법회: 불기 2559년 (2015년) 5월 24일 일요일
제1부 오전 11시: 봉축 법회
제2부: 관불의식

장소: 문수사 큰법당, 231 Salem Street, Wakefield, MA 01880
문의: (781) 224-0670, (781) 439-8383

* 연등접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지 스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781) 439-8383 입니다.

* 행사 당일 라이드가 필요하시면 주지 스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 I-95 North Exit 42로 나오신 후, 바로 Salem St으로 우회전, 약 150 미터 전방에서 Gst station의 왼쪽길로 직진후 약 200미터를 더 오시면 갈라지는 길에서 오른쪽에 문수사 표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I-95 South Exit 42로 나오실때는 Exit 직후 좌회전하신뒤 Salem St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38면에 이어서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2

[3학년 대상]

우리 선생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혜린

나의 한글학교 담임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지 아세요? 내 선생님은 다정하고, 웃으면서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예요. 나는 처음으로 남자 담임 선생님께서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 반에서 말을 안 듣고 선생님이 말할 때 떠들고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 선생님이 힘들지만, 선생님은 웃으면서 재미있게 잘 가르쳐요. 그리고 한가지 우리 선생님께서 특별한 것은 우리숙제를 선생님께서 직접 읽고 좋은 말 한가지씩 숙제에 써주세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학교 생활이 즐거워요.

나는 장문 선생님이 있다. 우리 장문 선생은 점심시간이 끝난 다음 오세요.

장문 선생님께서 글짓기에 대한 것을 잘 설

명해주셔서, 나는 오늘 글짓기 대회에서 잘 하고 있고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교실 안에서 한글짓기대회에서 상도 받게 되어 고맙다는 말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또한, 수업이 다 끝난 다음, 동생과 함께 사물놀이를 배워요. 사물놀이 선생님께서 열심히 가르쳐주세요. 나에게 팽가리를 어떻게 치는지 즐겁게 가르쳐 주셔서 나는 팽가리를 어떻게 치는지 이해 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그리고 곳 다른데에서 모두 앞에 사물놀이를 하게 될거예요.

멋지고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학교 생활이 즐겁고 한글학교도 재미있어요. 담임 선생님, 그리고 장문 선생님과 사물놀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4학년 대상]

내 친구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최가림

나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의 제일 지난 친구는 이지원이예요. 지원은 여자고 오빠가 있어요. 지원이랑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지금 예기하고 싶은거는 지원이를 소개 할거예요.

나는 밖에놀고 있었는데 갑자기안경인 여자가 왔어요. 나는 누군지 몰라서 여자한테 갔어요. "이름은 뭐니?" 내가 물어봤어요. "내...내 이름은 이지원이야" 지원이가 북스럽게 말했어요.

지원이는 한국에서 왔는데 영어는 많이해요! 우리는 인사만하고 갔는데, 그다음날 학교에 있었어요! 나는 빨리 가서 인사했어요. 지원이는 아무도몰라서 나를 따라 다녔어요. 근데 나는 지원이가 나를 따르다게 귀찮았어요.

우리는 같이 친구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났는데, 우리반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나랑지원이는 그여자를 진짜 싫어했어요. 그여자애는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해서 우리한테 뭐를 다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나랑 지원이 엄마가 친구가 돼벌었어

요! 우리는 우리반에서 진짜 똑똑했고 지원이는 수학을 제일잘했어요. 우리선생님은 지원이를 너무 좋아해서 지원이가 수학한 종이를 반 아이들에게 보여줘요.

지원이는 손으로 쓰기를 잘해요. 너무 잘해서 그나쁜여자가 지원이의 글씨를 따라했어요.

나는 영어를 더잘해서 지원이는 나를 좋아하고, 지원이는 수학을더 잘해서 나는 지원이를 좋아해요.

나는 지원이의 오빠는 조용해요. 지원이 오빠는 영어를 많이 못해서 조용해요. 그런데 장년에 한국으로 다시도라가서 나는 폼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있어서 귀찮은데, 이번 여름에 대전으로 가서 다시 지원을 만날거예요!

지원이는 나의 일년을 알았는데 우리는 좋은 친구라서 나는 지원이가 한국가는 게 너무 슬퍼요. 나는 지원이를 한번도 까머적인 데가 업서요. 지원이는 나의 언니 같어요. 지원이처럼 좋은친구가 이세상에는 업서요.

[5학년 대상]

소중한 내 목걸이 (내 친구)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문은진

"은진아! 같이 가서 놀이터에서 놀자!" 같이 그림 그릴래?" 나는 매일 내 친구 채현이의 목소리를 듣는다. 우리가 2학년부터 같이 놀던 친한 친구다. 그래서 날마다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많은 곳에도 놀러 간다. 하지만 어느날 나는 채현이가 한국으로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채현이가 한국으로 가면 나는 누구랑 놀지? 누구랑 같이 밥먹으러 가지?' 나는 몇일 동안 고민 했다. 그렇게 해서 몇일이 가고 몇달이 갔다. 어느새 채현이가 이사갈 날이 왔다. 안녕이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 나는 정말 속상했다. 그다음날, 성당에서 채현이 아빠를 만났다. 채현이가 산 목걸이와 달력을 줄려고 온것이다. 채현이는 벌써 한국에 갔지만, 채현이 아빠가 채현이도 똑같은 목걸이가 있다고 하고, 언제나 하고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알려 주었다. 나는 집에 가서 내가 채현이와 함께 했던 시간들, 같이 울고 웃으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생각났다. '채현이네 가족

도 이사짐 싸느라 바빴을 텐데?... 나는 이제야 채현이가 얼마나 나를 생각해 주는 지 알수있었다.

나는 이미 채현이랑 한 약속을 안 지켰다. 목걸이는 내 방에 던져 놓고, 채현이를 슬슬 까먹게되었다. 채현이도 한국에서 세 친구를 사귀고, 나도 미국에서 세 친구를 사귀고 있다. 하지만 채현이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채현이는 목걸이를 잘 하고 있겠지?' 나는 어떨때 채현이 생각이 난다. 자주는 아니지만, 나는 채현이 생각이 날때 같이 보냈던 시절들을 떠올린다. 채현이와 찍었던 사진들도 보면서 말이다.

오늘도 내일도 내 목걸이는 똑같은 곳에 있다. 나는 내 삶에는 언제나 슬픈 날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채현이 덕분에 그 시절을 해낼수 있었다. 나는 어릴적 시간을 떠올리면서 더 즐거운 삶을 살수있게 도와준 채현이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6학년 대상]

내가 좋아하는 일, 수영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최유민

여러분은 좋아하는일이 있으시지요? 저는 그 일이 수영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수영 연습을 갔다왔습니다. 좋아하는 일은 힘들어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수있는일입니다. 전 그것이 수영입니다.

저는 지금 Bernal's Gator Swim Club에 있습니다. 저는 이 수영팀에 얼마있지 않아서 아직 친구를 사기는 단계이지만 아직도 거기에서 수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Gator에서 하는 수영은 저에 예전 수영팀보단 좀더 수준이 높아서 아직 몸이 저장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틈에서도 연습이 끝나면, 재스스로 만족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처음에 제가 원래팀에서는 그 질거움이 훈련 다음에 없었는데, 이제 Gator 팀에 오니까 재가 그 훈련을 한게 참 만족스럽습니다. 원래는 저랑 킨더때부터 아주 친한친구, TY가 Gator 팀을 출전해주었습니다. TY는 나보다 많이 빨라서, 처음에는 야간 안하고 싶었습니다. 재 머리속에는 "내가 거기에서 제일 느리며는 어떡하지? 거기에가며는 친구를 사귄수 있을까? 내가 스텝이 마음에들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들을 옆으로밀고 Gator 팀에가서 더 빨라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Gator팀에 가기에가서는 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채고 보채고 Tryout을 가게 습니다. Tryout이 끝나구서

도 저에 부뭇님은 아직도 못할것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모든 방법을 다 보고, 스텝한태도 물어보고 해서, 드디어 Gator 팀에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Gator 팀에가기 전에는 Waltham YMCA Piraniah 었습니다. 저는 그팀에서 많은 경기에서 우승하고 Championship도 나갔습니다. 저는 수영을 할대는 재일 기분이 좋고 만족스러울대가 경기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수영을 하고 시간을 봐서, 시간이 똑떨 을때입니다. 그기분을 글이나 말로 표현을 할수없는 기분입니다. 그열심히하고, 시간 투자를 하고나서 그런 결과를 봐서 그기분을 느낄수있다는게 저한테는 수영을 하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Gator팀에서 재나이플에 친구들중에서 제일 빠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목표로 정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드일, 조아하건 실어하건 단점이 항상 있습니다. 애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수영장에서 늦게 나와가주고 우리 엄마가 화를 엄청 내셨습니다. 우리 엄마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도 나빴지만, 그것보단 아주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토요일 아침에는 절대로 늦지 안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전 무엇보다 수영을 열심히, 즐겁게, 할수있으면 내나이플에 친구들 보다 빠르게 수영을 개속, 오래 동안 하고 싶습니다.

KCG Tae Kwon Do Cup

31st Annual RI Open Championship

Hosted by Grandmaster Hong Taekwondo Center

태 권 도



Saturday, May 30, 2015

For information call: 401-885-4900
Download registration packet at: www.ritkd.com

Sponsored by:



KOREAN
CONSULATE
GENERAL
IN BOSTON



MSL Facial & Oral Surgery

Frank Paletta MD, DMD, FACS
Mo Banki MD, DMD, FACS

Warwick, RI - N. Attleboro, MA
www.MSLSURGERY.com

AMERICAN TAEKWONDO UNITED
NUAC BOSTON CHAPTER
BOSTON KOREAN SOCIETY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RI
BOSTON KOREA
NE KOREAN SCHOOL

▶▶ 40면에 이어서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3

[7학년 대상]

내가 좋아하는 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정기려

나는 말을 잘못한다. 친구랑 얘기를 나누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다른 곳을 본다. 그래서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할수없다. 내 감정들은 내 마음을 탈출하고싶다. 그러나 내 마음의 감옥에 갇혔다. 갈수록 감정이 많아지고 마음은 더 답답하고 나는 힘들어한다. 음악을 찾기전까지는 나는 이런 처지 이었다. 음악을 찾기전까지는 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슬픔, 설렘, 다른 감정들도 느끼지 못했다.

음악은 나의 탈출이었다. 어두운 감옥에 벗어나 음악의 세상으로 탈출했다. 노래로 나의 감정들이 드디어 내마음에서 나왔다. 슬픔은 슬픈노래로, 행복은 행복한 노래로, 감정들은 다 짝을 찾았다. 짝을 찾고선 하늘높이 날고 다니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노래를 즐겨 부른다. 스트레서 푸는 방법이고 또 이 세상을 잊게 한다. 이 세상은 나쁜놈들도 많고 싸움도 많고 죽음도 많다. 이 세상은 무섭고 싫다. 이세상을 떠나

고 다른 세상으로 가고 싶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나는 결국에는 이세상에서 존재하는 인간이라서 이 세상을 못 떠난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세계, 음악의 세상을 만들었다. 거기로 가는 방법은 쉽다. 눈을 감고 노래를 듣거나 부르면 바로 음악의 세상을 향한 KTX에 탑승했다. 도착을 했을 때 벌써 지긋지긋한 세상은 잊혀 있고 노래속에 있는다. 먼지가되거나 희야를 부르거나 그 노래속은 평온하고 행복하다.

나의 탈출, KTX이 되준 노래한테 너무나도 고맙다. 내 마음의 열쇠가 되어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만들어 줬다. 그것은 바로가수가 될 준비다. 가수 될 확률은 아주 낮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고 좋아하는 일도 생겼다. 그래서 나는 그전에 없었던 행복함을 느끼고 희망도 얻었다. 비록 준비지만 가수가 될 준비하는일이 내인생을바꿨다.

[8학년 대상]

10년 뒤에 나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김수경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 붙어 꼭 한번씩 듣는 문장은, "너는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싶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주, 가수, 배우 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점은 어린나이의 관찬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중학교를 곳 조를 할것이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들어가면 제가 평생 돈을 벌면서도 질기면서 일할수있는 지점을 찾아야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끔 고민했던 문장은 평생 무엇을 하면서도 새로운정보를 배울수있을까? 평생 아침 일찍 벌떡 일어나서, 웃으면서, 기대를 잔뜩하면서 갈수있는 지점이있을까? 장년까지만으로도, 저는 없을까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김수경은 이제야 꿈을 찾았습니다.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몇 달전, 저의 한글학교 교장선생님의 딸이 보닌의 지겹게기를 하로 우리 한국학교에서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의 꿈을 일우려고 있는 길이었죠. 저는 그것도 몰로, 강당으로 가면서 생각했던 것이 '왜 들로 가야하지? 재미 없을텐데 ㅠ' 강당에 앉아서 저는 친구들이랑 장난을치고 스피치가 시작하자 혼자 앉아 멍때리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스피치가 시작되자, Agnes은 자기의 고등학교 인생과, 자기가 좋아하는것, 자기가 없애 꿈을 찾았는지 여러가지 말을 얘기 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제가

친하게 진에는 친구들, 잘 아는 고모, 삼촌 보다도, 더 저랑 똑같은 사람이었지요. 그때 붙어 Agnes에 스피치를 잘듣기 시작했지요. Agnes에 꿈은 외교관이었지요. 그는 저랑 비스타게 책을 자주 읽었고, 토론과 스피치를 만드는것을 좋아했지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Agnes가 외교관이라는 지점을 소개했을때, 저의 첫번째 반응은, "영? 변호사도 안이고, 이 지점은 무엇을 하는 거지?" 외교간은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미국 거버먼트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지점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참 훌륭한일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이 지점은, 제가 지점에서 제일 원하는것이 다 들어있었지요. 질길수있는것과 새로 배울수있는 것, 외교간을 하려면 스피치를 잘해야되고, 토론도 마참가지로 잘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만은 언어를 알아야되고요. 외교관이 되면 항상 새로운 언어를 배울수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저는 언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지요. 보너스로, 어디를가도, 집과 차는 외교간의 지점에 합격해있었지요. 저는 이때 었지요. 끈을 잡았지요.

외교관이 되려면 열심이 노력해 공부를하고, 말하는것도 잘해야되고, 자주 이사로 해야하고 학교를 몇십년을 더 다녀야 하지만, 저는 꼭 일우고 싶은 꿈입니다.

10년 뒤에 나는... 외교관, 파이팅!!

[9학년 대상]

남북통일이 된다면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린

한국은 두 다른 나라들로 나누어진 영토입니다. 이 나라 이름들은 남한과 북한입니다. 이 나라들의 사람들은 이제 62년동안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이 다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북통일이 된다면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남한의 현재 경제는 좋는데 북한의 경제는 아주 나쁩니다. 남북통일 후에는 북한의 나쁜 경제 때문에 통일 한국의 경제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직업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에는 더 많습니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그때에는 남한에 살기가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남한사람들의 기회들이 더 줄어들고 직업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것입니다. 이 많은 북한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면 더 많은 집들과 아파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집들은 많이 없지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값도 올라갈 것입니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다른 문화들때문에 이상할 것이고 적응을 많이 해야할것입니다. 62년 동안 한국사람들이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문화와

언어가 다를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 사람들이 같이 한나라에 같이 살기 되면 문화와 언어 차이점들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은 다른 나라들의 눈에는나쁜나라로 보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북한에 대한 농담들을 많이 듣고 뉴스에도 북한이 하는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 북한이 좋지 않는 나라인 것을 다 압니다. 남한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 사이 좋고 잘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남한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북한과 통일한다면 그 나쁜 이미지가 통일 한국에도 넘어갑니다. 북한의 나쁜 이미지가 통일 한국에도 넘어가 더 생각날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통일 한국은 쉽게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좋지않은 결과들 밖에 나올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나쁘고,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들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것이고, 북한의 이미지 때문에 통일 한국은 좋지않은 이미지를 가질것입니다. 두나라로 나누어 사는것이 더 좋을것입니다.

[10-12학년 대상]

인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주은

인연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이 인연이라고 할수있지요. 정말 드라마에 생기는 모든 일처럼 과연 인연일까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인생이 정말 인연일까요? 그리고 제 남은 인연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들도 어떻게 큰 영향이 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미래에 어떤일이 발생할찌 궁금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하는 만큼 받는다고 믿어요. 나쁜 인연은 누구에게도 올수있지만 좋은 인연은 수많은 일과 고통으로 얻는다고 깨달았습니다.

이학년때 멕시코를 가족과 여행으로 다녀왔는데, 그 여행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호텔에 있는 수영장에 따 한 햇볕과 풍경을 즐기고 있으며 참 좋은날 이었지요. 맑고 깨끗한 물에서 재밌게 놀며 맛있는것도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슬 한시가 되자 엄마께서 그만 나오고 밖에 구경하러 가자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은 가득 있으면, 결국 엄마를 따라가게 됩니다. 밖에 시장에 라가서 구경하기 시작 했습니다. 수영장으로 다시 가고싶은 마음으로 시장을 구경하지도 않았습다. 제가 원할 때를 쓰길래, 이저 곳 집으로 떠날 참이었었는데, 옆에서 어린아이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낡은옷

을 입고 맨발로 뛰여단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다 돈을 간절하게 달라고 했습니다. 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아이가 참 불쌍해보여, 그 어린나이에 옆에서 달려서 있는돈을 점부다 줬습니다. 그돈을 주며 그 아이의 밝아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제 마음속에있는 생각이 달라졌지요. 그런데 일이면왜 그때 이였을까요? 왜 제가 그 어린나이에 그 아이한테 돈을 줄 생각을 했는지 알수는 없지만, 그순간부터 많은 생각과 고민이 생겼고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 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가질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어린 소녀처럼 살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보니, 제가 그 자람들 중에서 아니라는 게 참고맙고 행복했지요. 하지만 인연이라는 것은 항상 유용하게 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를 만나고 나서, 제 인연은, 사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제 인연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인연은 항상 누군가가 아니라 무엇인지 알게 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유그리고 이 하나뿐인 인생을 확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면, 모든 사람들 웃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것입니다. 미래에 누구를 만나든, 못은일을 하던, 저는 꼭 세상을 변화 시키는 사람이 될것입니다.

뉴튼아름다운교회

www.newtonbeatifulchurch.org



2015 오순절(샤브오트) 성회

주제: 오순절의 의미와 정신

5월 22일(금) 오후 7:30

예레미야 31:31-37; 로마서 11:1-2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어찌 이스라엘을 버리랴!”

5월 24일(주일예배) 오후 1:00

신명기 5:1-15; 요한계시록 16:12-21

“출애굽 전쟁에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5월 23일(토) 오후 6:30

출애굽기 32:21-35; 사도행전 2:37-42

“하루에 삼천 명이 죽고 살던 그 날”

5월 24일(주일) 오후 3:15

신명기 6:20-25; 마태복음 5:38-48

“아들의 질문과 아버지의 대답”

강사: 홍순욱 목사 (부평서부교회 원로목사, 한국 이스라엘 친선협회 고문)

이스라엘과 이슬람 문제는 이제 머나 먼 중동 땅에서 타오르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회는 이스라엘과 이슬람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그 실황을 파악하게 도와 주어서 이 무서운 전쟁에 힘있게 대처하고 승리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오시는 길



장소: 뉴튼 아름다운교회
848 Beacon Street Newton Centre MA 02459
전화: 978-387-1115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82)

뮤추얼 펀드 투자는 잘못

특정 회사 주식 투자로 쓴맛을 경험한 투자자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합니다. 펀드의 많은 자산과 정보력 그리고 주식전문가라 말할 수 있는 펀드매니저의 투자 경험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펀드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에는 대부분 뮤추얼 펀드가 포함되어 있기에 일반 사람 대부분이 몇 개의 뮤추얼 펀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뮤추얼 펀드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펀드매니저가 여러 회사 주식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가 있고 다른 하나는 펀드매니저 없이 운용되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P 500 인덱스 펀드로 미국에서 회사 주식규모로 500개 회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작년(2014)에 S&P 500 인덱스 펀드의 수

익률은 13.7%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입니다.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이 이것보다 많으면 주식시장을 이겼다고(beat the stock market)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한 연구기관(S&P Dow Jones Indices Scorecard)에서 뮤추얼 펀드의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 대기업에 투자한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더 높았던 뮤추얼 펀드는 단지 14%였다는 결과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못했던 뮤추얼 펀드가 무려 86%였다는 사실입니다. (관련기사: 86% of investment managers stunk in 2014, CNN money)

이것이 작년 한 해에만 있었던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년이 아닌 지난 5년 동안 인덱스 펀드보다 저조했던 뮤추얼 펀드는 89% 그리고 10년 동안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뒤떨어졌던 뮤추얼 펀드는 82%라는 사실입니다.

뮤추얼 펀드 매니저는 500개 회사 중에

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회사만 선별해서 투자합니다. 그러므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 수는 500 회사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적은 회사의 숫자는 그만큼 투자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 주식 시장에서 나오는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 위험성을 더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뮤추얼 펀드와 인덱스 펀드의 경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의 평균 비용은 1.3%입니다. 뮤추얼 펀드의 경비가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펀드매니저, 주식분석가, 등 많은 사람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덱스 펀드는 이러한 비용이 전혀 없기에 인덱스 펀드 투자비용은 평균 0.3% 정도입니다. 경비에서만 투자자는 1.1%를 세이브 할 수 있다고 모닝스타 회사가 말합니다.

투자하는 데는 '싼 것이 비지떡' 이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한 푼이라도 남에게 주지 않으면 그만큼 나의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 수는 없으나 경비는 항상 부과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뮤추얼 펀드는 인덱스 펀드와 비교해서 경비는 많고, 투자 위험성도 더 많고 투자하는 데 중요한 수익률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뮤추얼 펀드 투자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일반 투자자를 도와주는 재정상담가라는 사람은 고객의 자산을 뮤추얼 펀드에 투자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뮤추얼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도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높은 확률이 희박한 데 재정상담가는 그 많은 뮤추얼 펀드에서 어떤 펀드가 주식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선별하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사실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이유 대부분은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인덱스 펀드나 ETF를 이용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81 최흥희와 태권도(3)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1955년 4월 11일, '태권도'의 탄생이다. 태권도라는 무도가 그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해방 전후부터 10여년 동안 수련해 오던 당수/공수도의 이름을 개명한 것이다. 최흥희가 작명한 '태권도'는 당시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무도계 전체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또 한번의 강산이 변한 뒤, 1965년 그가 '대한태수도협회' (5.16군사정변 이후부터는 '태수도'라고 불렀다)의 회장직을 맡으면서 태권도협회로 개명하여 지금까지 다시 변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자신이 작명한 '태권도'로 협회의 이름도 바꾸고 무도의 이름도 고착화 되었지만 그는 협회명과 무도명의 개명사건으로 회장직에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었다.

1959년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태권도교본을 만들었다. 또한 동년 3월에는 19명의 사범들로 구성된 태권도 시범단을 인솔하여 월남, 대만 등에서 시범을 하며 태권도의 해외 보급에 힘썼다. 그리고 동년 9월 3일에는 대한체육회 건물에서 6대문과들이 모여서 태권도를 널리 보급하여 국민들의 체력향상과 정신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

여 국민체육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대한태권도협회'를 창립하였다. 당시 무도의 명칭 선택에 있어서 공수도로 하자는 관과 당수도로 하자는 관 등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청도관과 오도관의 합세로 '태권도'로 하였다. (초대 회장 최흥희, 부회장에 송무관의 노병직, 지도관의 윤쾌병, 이사장에 무덕관의 황기, 임원에는 청도관의 현종명, 고재천, 엄윤규, 남태희 등 4명과 이남석, 김순배, 조병시, 이영섭, 최동희 등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이 협회는 이듬해 일어난 4.19 전조의 어지러운 사회혼란상으로 인하여 대한체육회에 등록도 하지 못한채 미아처럼 해마다가 5.16 군사정변 후 사회 유사단체 통합포고령에 의해 없어지고, 거의 같은 무도인들에 의해 '대한태수도협회'가 창립되었다.

1960년 최흥희는 미국 텍사스에서 군사교육 중에 샌안토니오(San Antonio)에 있는 이준구의 '가라데 도장'을 방문하여 가라데 대신 태권도의 명칭을 사용할 것을 건의했고, 이준구가 받아드리면서 이준구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태권도'를 사용한 무도인이 되었다. (이준구는 그래서인지 자칭 '미

국의 태권도 아버지'라고 한다) 당시는 교포들도 많지 않았지만 태권도(당수/공수 또는 코리안 가라데라고 불렀음) 도장을 운영하는 사범들도 소수였다.

최흥희는 박정희 대통령과의 불화와 갈등, 마찰과 비난으로 결국 1972년 캐나다(토론토)로 이민하였다. 최흥희의 저서 '태권도와 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기 전에 박정희가 자신을 자주 찾아와서 시국을 논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같이 개혁하자고 상의를 했으며 결국 구체적인 내용까지 함께 모의를 하였다. 하지만 정작 거사를 이행할 때는 최흥희는 소외되었다. 당시 그는 논산 제2훈련소장으로 있었으며, 정변 소식을 라디오로 들은 후 박정희가 정변 결행시간을 모두에게 속였다고 실망하였고 배신감마저 느꼈다고 술회했다. 그리고 박정희가 장본인이었다면 요절을 났을텐데 이제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면서 체념을 했다. 또한 그가 '혁명본부'를 찾았을 때 박정희가 런닝셔츠 바람으로 뛰어나와 포옹을 하면서 서울에서 실패하면 각하 계시는 곳(논산 제2훈련소)으로 가려고 했으며 반갑게 맞았다고 했다. 그 후 최흥희

는 같이 '혁명'을 모의하고도 거사일에는 알리지 않음에 배신감과 불만이 더해졌고 또한 당시 군내의 최대 파벌인 '만주파'의 박정희가 자신이 속한 '이북파'를 몰아낼 것으로 생각하면서 불안정을 바탕으로 한 갈등은 깊어져만 갔다. 그리고 그는 5.16정변 후 논산훈련소장에서 제6군단 군단장을 역임하고 그 이듬해 1962년에 예편하였다.

1962년 최흥희는 말레이시아 대사로 갔다. 당시 박정희는 대통령에 출마하였고, 무도계에서는 5.16군사정변 후의 조치(포고령)로 인하여 사회단체 통합법의 일환으로 '대한태수도협회'가 창립되었으며 초대 회장직에 1순위였던 최흥희가 말레이시아 대사로 나가는 관계로 채명신장군(준장, 혁명위원회 감찰부장)이 추대되었다. 그는 대사로 가기 전에 육군소장 전역환송연에서 박정희 의장의 대통령 출마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제는 간신들만 득실거릴거라는 독설을 주저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로 나간 후 그는 더 이상 박정희와의 접촉은 없었다. 그는 대사직을 수행하는 동안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태권도 시범을 통하여 태권도의 보급은 물론 외교활동의 중심으로 삼았다.

구속사 성경 세미나

The History of Redemption Semiar at Harvard University

강사



이필립 박사 Th.D.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미국 페이스 신학교 신학박사 Th.D.
 (현)중앙신학대학교 대학원 외래 교수
 (현)미국 페이스 신학교 교수
 (현)미국 크리스찬 칼리지 부총장

통역



박종서 목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LA 학사
 리폼드 신학교 NC 신학석사
 베리트 신학교 신학박사
 낙스 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
 구속사 시리즈 영어 번역 책임자
 실로 세계 선교회 목사



5.26 제 1강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에 담긴 비밀 (창 5:1)

5.27 제 2강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에 담긴 비밀 (창 11:10)



저자의 방대하고 해박한 지식이 돋보이는 매우 건전한 복음주의신학 전통을 계승한 책

브루스 윌키 박사
 • Dr. Bruce K. Wolfe
 • 달라스 신학대학교 신학박사,
 하버드 대학교 고대근동문학박사
 • 리젠트 신학대학교 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교수
 • 달라스 신학대학교 교수, 낙스 신학대학원 교수
 • NIV, NASB 성경 번역 위원
 • 뉴제네바 스테디 바이블 편집자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는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성경 속에 살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분

워렌 게이지 학장
 • Dr. Warren A. Gage
 • 미국 남부감리교대학교 학사 수석 졸업
 • 미국 달라스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수석 졸업
 • 미국 남부감리교대학교 법학박사
 • 미국 달라스 신학대학원 정치 철학박사
 • 독일 튀빙겐대학교 박사후 과정 수료
 • 현 낙스 신학교 구약학 교수 및 학장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책이며, 뛰어난 성경 연구의 결과

노먼 매노허 박사
 페이스 신학대 총장

세계 어떤 저작에서도 살피볼 수 없는 한국교회의 자랑거리

민영진
 •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Ph. D)
 • 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기념성서주석 출애굽기 전도서, 아가서, 사사기, 룻기 저자
 • 前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대한성서공회 총무
 • 現 세계성서공회 아태지역 이사회 의장
 침례신학대학교 특임교수



세계 도처의 저명한 도서관이나 국립 도서관 서가에 꽂힐만한 저작(巨作)

민경배
 • 前 연세대학교 교수,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 現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2015.5.26 (화) – 5.27 (수) 오후 7:00

주최: Harvard Extension Wellness Club

협찬: 보스톤 사랑제일 교회

장소: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Studies (CGIS) South Building
 Belfer Case Study Room (Room #SO20)
 1730 Cambridge Street Cambridge, MA 02138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턴코리아 컬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세기 아동 노동,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착취

어린이날, 큰 아이와 소파 방정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다. “방정환 위인전 기억나? 어린이날 만든 방정환 아저씨, 알지? 어린이들은 귀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자고 어린이날을 만든거야.” 항일 운동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는 설명할 재간이 없었으나, 어쩌다 우리 이야기의 주제는 <아동 노동>으로 새어버렸다. “백 년 전만해도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아이들이 많았어.” “왜 애들이 일을 해?” “가난해서 그랬지.” “한국은 가난해?” “아니야. 지금은 한국도 부자나라야. 하지만 예전엔 가난했어.” “한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처럼 부자였으면 좋았겠다.” “음..그런데 사실 백 년 쯤 전까지는 미국에서도 너만한 애들도 다들 농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랬었어... 옛날에는.”

아동노동: 영국 산업화의 그림자
19세기 전반, 영국의 산업 혁명이 배경이 되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 (Oliver Twist)에는 빈민원에서 쫓겨나 단돈 오 파운드에 팔려간 올리버 트위스트는 ‘사악한’ 어른들에게 착취당한다. 올리버 트위스트만 역세게 운이 없었던 것일까? 그럴리가! 아동과 청소년 구성원이 학교 교육을 커녕 공장이나 탄광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도 생계 유지가 힘든 것이 19세기 전반부 영국의 노동계급 가정의 일반적인 현실이었

다. 물론 어른과는 다른 존재,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아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의 산물이며, 인류 역사를 통틀어 대부분의 시기에 어린이들은 어쨌거나 ‘노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산업 혁명기 초반의 아동노동은 통제가 용이한 취약한 대상에게, 교육의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삶을 굶아먹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결국 영국은 1833년 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노동 금지와, 9세에서 13세 사이의 아동에게는 주 48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올리버 트위스트들 미국에서도 이미 1832년 뉴잉글랜드 유니온이 “아동들이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들의 복지와 건강에 반하여 건강을 위한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일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1833년 매사추세츠는 공장에서 일하는 아동들이 연간 최소 3개월의 학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최초의 아동노동법을 통과시켰으며, 1836년 전미 트레이드 유니온은 최소 노동 연령을 제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2차 산업혁명기 미국은 영국의 산업혁명기 초반을 답습했다. 기계화로 인한 대량 생산의 시대, 울트라 수퍼

갑의 위치였던 산업자본가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다. 그러나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 사실은 성장과 빈곤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미국 노동자들, 특히 비숙련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던 이주노동자들은 절대 빈곤에서 좀체 벗어나기 힘들었다.

당시 대부분의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혹은 그 이상을 일했고, 노동 환경도 척박했다. 하지만 그들이 손에 짤 수 있는 급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가족 중 어린이들까지도 노동에 참여해야 겨우 생계가 유지될까말까 한 것이 현실이었다.

자본가 혹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저렴한 게, 그리고 쉽게 착취할 수 있는 아동 노동은 이익의 극대화를 의미했다. 게다가 아동노동 투입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의 수준을 낮추고, 이로 인해 노동 계급은 어린 자녀들을 노동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미국에서 노동 현장에 투입된 아동의 수는 1870년에서 1900년까지 3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약 두 배 가량 증가하여, 1900년 경 아동노동자의 수는 2백만에서 3백만에 이르렀다.

다행히 미국에서 아동 노동의 문제 역시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개선되었다. 개혁주의자들의 캠페인이 어느 정도 입법적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1890년에서 1920년 사이 상당수의 주들이 Attendance Laws를 입법화

하여 14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의 초 중등교육을 의무화했다. 이로써 1890년대 고작 6%의 청소년들이 중등교육을 받고 있었다면, 1920년에는 이 수치가 30% 가량으로 늘었다. 아동-청소년 노동자들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다. 가령 1903년 필라델피아에서는 섬유 노동자들이 주당 최대 55시간 노동 및 최저 임금의 상향조정을 내걸고 파업에 나서는데, 이 중 약 10%는 아동 노동자들이었다. 파업의 성공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은 아동 노동 착취의 ‘문제’를 의제화하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마침내 1916년에서 18년 사이, 아동 노동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아동착취의 역사가 끝났다고? 천만에!
그래서 미국에서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가 사라졌을까? 현재 통계에 잡히는 것만 전 세계 14% 가량의 아동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노동하고 있다. 그 아동노동의 절대 다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빈곤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미국과는 무관한 일로 치부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최빈국들이, 아이들까지 하루 종일 노동해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적어도 소비만능주의의 탓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값싼 물건 값에 취한 무분별한 소비의 문화를 재고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아동 노동 착취의 연대책임이 있다.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2015 미국 명문 대학 정규지원 분석: 프린스턴 대학교

정준기 원장 (보스턴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는 지난 몇년간 미국 US News Week 선정 대학 순위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한 대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선망하는 대학 중 하나이다. 입학 허가 사정 기준이 하버드와 많이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여 한동안 프린스턴에 입학 허가된 학생들이 하버드에서도 동시에 입학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필자가 최근 몇년간 언급해오고 있듯이 이제 두 학교 모두에서 입학허가를 받는 일이 매우 드문 경우가 되고 있다. 이는 각 대학들이 보다 자신의 학교 색깔에 맞는 학생들을 선택하고자 하고 동시에 조기지원 합격자수를 전보다 조금씩 많이 뽑아 정규에서는 보다 다양한 색깔, 지역, 성비, 전공, 많은 고등학교등에서 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리쿠르트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프린스턴은 총 27,290명이 지원하여 1,908명의 학생이 입학허가되어 6.99%의 합격률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1,207명의 학생들에게 대기자 명단을 주었다. 프린스턴이 올해 1,310명의 신입생들을 최적의 사이즈라 보고있다. 그러나 올해 학교 지원자 신기록과 동시에 최종등록 학생 신기록을 세워 더이상 대기자 명단에서 신입생을 뽑기는 힘들어 보인다. 현재 총 1,324명이 등록하여 학

교가 예상한 최적의 신입생 규모 보다 14명이나 더 많은 학생들이 최종 등록하게 되었다. 대기자 명단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많이 실망스러운 소식이라 생각이 된다.

프린스턴의 경우 3,830명의 조기 지원자들 중 767명이 입학허가를 받았고(20% 합격률), 정규의 경우는 총 23,460명이 지원하여 1,141명이 입학허가를 받았다(5% 합격률). 결론적으로 조기지원이 정규 지원보다 훨씬 유리하고 합격률도 높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고려해볼 사항이다. 하지만 많은 한국 출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프린스턴대도 좋지만 일단 조기에 하버드를 지원하고 추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정규지원 시에 프린스턴에 지원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 정규의 결과가 참담할 만큼 좋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

프린스턴에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를 분석해보기로 하자. (합격된 학생들 기준)

- 남자 52%, 여자 48%
- 49% 소수 민족(흑인 10%, 히스패닉계 12%, 인디언 1%, 아시안 23%), 백인 51%
- Legacy 10%
- 공립 학교 출신 61%/사립 학교 출신 39%: 총 9500개 학교에서 지원
- First Generation(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 15%

- 엔지니어링 전공 23%(여자 44%)
 - 외국인 학생 13%(66개 국가 출신)
- 결론적으로 볼 때, 여학생들 중 공과 대학 지원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프린스턴이 당분간 공과 대학에 흥미 있는 여학생들을 더 리쿠르트하여 남녀 성비의 균형을 엔지니어링 전공에서 맞추고자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뽑고자 하고 레가시와 가족 중 최초의 대학생 배출한 가족에 대하여 입학 혜택을 상향 조절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인 소외 계층 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기존 방침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계층에 포함되지 않은 유학생들의 경우는 조기 지원, 전공에 대한 강한 열정과 경험, 우수한 성적과 리더쉽, 그리고 공동체에 공헌을 많이 한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한 대학이다. 프린스턴은 특별한 합격 공식이 없고 학교가 제한된 전공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학이 제공하는 전공을 먼저 파악한 후 필요한 준비와 경험을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해야 한다. 동시에 충분한 리더쉽 경험을 통해 학교 공동체에 존재감을 심어 준다면 보다 확실한 입학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www.pospay24.com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 & Wine 면허증,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네일살롱, 새 장비들, 매매가격 \$60,000 고급동네

뉴햄프셔(보스톤에서 1시간 거리)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연매상 \$165,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45,000 매매가격 \$40,000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랍 스토어 연매상 \$90,000 매매가격 \$30,000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매매가격 \$99,000 32년만에 은퇴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2015 여름방학 프로그램

I .SAT I (Old, New)

- 기간: 6.22~8.21
(3주단위,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일프로그램(9:00~5:30)
 - 최고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및 학사관리 (home work, 단어 test, 매일 test결과보고서 발송)
 - 다양한 선택 가능성

II. College App Essay

- 기간: 7.13~8.21
(2주단위,3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강사:
15년 이상의 강의경력
에세이및 교정 전문가
- 수업내용
 - Common App 에세이 주제
 - 자신에 가장 적합한 주제선정과 표현법
 - 완성도를 높이는 교정법

III.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7.13~8.21
(3주단위,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및 어휘력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